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6호 1962년

평양 근로자사 발행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第16호 (209)
1962년 10월 (상)

차 례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박 웅 걸

우리 당은 문학 예술을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강유력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그의 발전에 언제나 커다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1930년대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 하에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태여 났으며 보급되였던 혁명 문학 예술과 카프 문학의 전통에 토대하고 있는 우리 문학 예술은 해방 후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에 의하여 미증유의 개화를 보게 되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 문학 예술의 이러한 개화 발전은 이에 대한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옳바른 지도가 있음으로써만 가능하였다.

우리 당은 문학 예술의 모든 문제는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과업의 립장에서 출발함으로써만 옳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친 레닌적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였으며 이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문학 예술의 인식 교양적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돌리면서 그것을 어느 한 개인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이며 당적 사업이라는 철저한 원칙에서 문학 예술을 혁명 사업의 위력한 구성 부분으로 특히는 당 사상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인정하였으며 인민적이며 당적인 문학 예술 창조를 위하여 시종 일관 깊은 관심을 돌려 왔다.

당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서 력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결정들과 대책들로 문학 예술인들을 고무하였으며 문학 예술 창조 사업에서의 무사상성을 철저히 배격하며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문학, 고상한 사상성과 예술성을 가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을 위한 투쟁에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한결같이 나설 것을 가르쳐 왔다.

실로 해방 직후부터 당과 수령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서만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의 《입을 통하여; 붓대를 거쳐서》 반동 세력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해방된 인민의 창조적 로력 투쟁을 거대한 긍지와 드높은 열정을 가지고 노래부를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전후의 어려운 복구 건설 시기와 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시기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거대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훌륭하게 일반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속에서 근로 인민을 로력적 위훈에로 부르는 자기의 전투적 사명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다.

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사랑과 인기를 쟁취한 예술 작품들이 그 사실을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산문 분야에서 《두만강》, 《석개울의 새 봄》을 비롯한 많은 장편 소설들과 젊은 작가들의 전투적인 단편들, 시 문학 분야에서 서사시 《밀림의 력사》를 비롯한 수 많은 시인들이 그리도 정열적으로 읊은 로동 찬가들—이 모든 것을 여기에 일일이 렬거할 수는 없다.

최근 년간에 우리의 예술이 달성한 특출한 성과들은 무대 예술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엿볼 수 있다. 연극 《붉은 선동원》,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 무용극 《유격대의 딸》 그리고 고전적 민족 무용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창작 방법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사실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술이 열어 놓은 새로운 경지이며 혁신이다.

우리 예술의 혁신성은 특히 현실적 주제를 성과적으로 개척한 거기에 있다. 우리 현실에는 위대한 사변들이 많으며 훌륭한 예술 작품을 위한 생활적 주인공들이 허다하게 존재한다. 우리 문학 예술은 그 위대한 사변들과 새로운 인간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담하게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인민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1960년 11월 27일 교시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관련하여 우리 문학 예술의 과업은 하나의 천리마 기수의 전형을 통하여 만인을 교양할 주인공을 창조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천리마 시대의 미학을 천명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우리 문학 예술의 새로운 앙양을 위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하나의 전형으로써 만인을 교양할 수 있는 성격의 창조—이것은 우리 시대의 영웅인 천리마 기수들의 공산주의적 리상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하루 속히 완성하려는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사상을 예술적으로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 《붉은 선동원》에서 선동원 리신자는 당이 제기한 알곡 증산의 과업을 끝끝내 수행하기 위해서 락후한 조합원들을 개준시키는 일에 희생적으로 나선다. 당에 대한 충실성, 공산주의적 자각성과 사회주의적 로동에 대한 드높은 열정—이런 것이 녀주인공으로 하여금 관람자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술의 주인공—이는 생활의 주인공이다. 이 주인공을 통해서 인민은 생활의 본질과 의의를 재인식하며 새로운 각성과 결의를 체험하는 것이다. 현실적 주제의 작품이 가지는 생활력—사상 교양적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문학 예술은 당의 총 로선인 천리마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인민의 사회주의적 의식 개변과 공산주의적 도덕 교양을 위한 당의 과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사업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활에서 사말적이며 부차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반대로 거대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에로의 돌입—바로 여기에 우리 예술의 전투성이 있으며 생활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의 대표적인 실례로서 군무 《쇠'물은 흐른다》의 예술적 경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쇠'물은 흐른다》는 비단 로동 계급의 투지와 혁명적 락관주의를 천명하였

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의 거류 속에서 그것을 해명한 것으로써 시사 깊다. 무용과 같은 예술 분야에서 현대적 주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결코 단순한 과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예술가들이 용해공들의 생활을 그리도 형상적으로, 선명하게 구현할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지향하는 많은 무용가들에게 있어서 고심 참담하던 현실적 주제를 바로 우리 예술가들이 빛나게 실현하였다는 의미에서 이 작품은 매우 큰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무가들은 대담한 환상을 동원하여 용해공들의 로력적 위훈과 생활적 환희를 정열적으로, 화려하게 형상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문학 예술은 《대담하게 생각하며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구호를 예술 창작에서 직접 구현하고 있으며 오늘날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 예술이 최근 년간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원인의 하나는 작가 예술인들이 약동하는 우리 현실의 위대성을 진실하게 반영하면서 작품에서 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옳바른 해답을 준 거기에 있다. 례컨대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는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이 가지는 거대한 생활력과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갈등을 예리하게 제시하고 해명하였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서 그 새로운 것을 사회 정치적 및 도덕 륜리적 규범으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문학 예술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친근한 길동무로, 그의 고무자로, 또한 그의 《교사》로 되고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의 현대성을 말할 때 이상과 같은 인간의 사회주의적 개조나 사회주의 건설의 주제들과 더불어 특히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의 전형 창조에서 얻은 성과를 중요하게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과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전형화하는 문제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문학 예술은 최근 년간 이 주제를 해결하는 데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 대표적 실례로 가극 《밀림아 이야기 하라》, 연극 《불사조》, 《해바라기》, 무용극 《유격대의 딸》및 기타 작품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비록 력사적 제마를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생한 현대성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거대한 고무적 역할을 놀고 있다.

항일 유격 투사들의 전형적 성격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정신적 기질을 체득하게 된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 백절 불굴의 강의한 투지, 조국과 인민에 대한 다함 없는 사랑, 고상한 동지애—항일 투사들의 이러한 성격적 특질들은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성격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으며 더욱 휘황한 공산주의적 미래에로 인민을 자극하는 힘으로 되고 있다. 일제 침략자들과의 어려운 투쟁 시기에 승리에 대한 신심을 견지하여 적의 포위선을 뚫고 끝내 자기 부대로 찾아 오는 김 순실(연극 《태양의 딸》)의 용감한 모습은 바로 영웅적 우리 인민의 기개를 상징하고 있다. 이 영웅적 제마들은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과 투쟁의 구감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고찰한 데 기초하여 우리의 문학 예술의 전투적 성격은 결국 생활이 제기하는 긴절한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는 데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긴장된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이러한 방향이 우리 문학 예술의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내용을 거세하고 그 어떤 신변 잡기나 안온하고 침체한 생활 묘사가 문학 예술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문학 예술이 그 어떤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3월 11일 교시에서 우리 음악 예술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음악은 전진하는 시대, 혁명적인 시대의 전투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문학 예술이 랑만적인 열정과 생활의 깊은 진리를 충분히 구현한 영웅적인 형상을 계속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생활을 창조하는 로력적 위훈에로, 밝은 희망에로 부르는 예술, 그리고 원쑤에 대한 증오와 비타협성으로 일관된 예술을 창조하는 과업만이 우리 작가 예술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의 힘은 그 속에 시대 정신과 인민들의 생활이 맥박치고 있는 데 있으며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활의 의의와 본질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며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생활의 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는 데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혁명하는 시기의 우리 문학 예술은 이른바 《고요하고 잔잔한 것》이나 《정적인 것》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이러한 것은 결국 간고한 혁명 투쟁으로부터 물러 서려 하며 예술을 그 어떠한 흥미 본위주의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자들만이 요구할 수 있다.

생활적 진실로부터의 리탈은 예술의 내용을 퇴폐적인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허울 좋은 걸치레로 되게 한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초현실주의 예술이 잘 말하여 주고 있으며 또한 현재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횡행하고 있는 추상파 예술의 진상이 증명하여 주고 있다. 부르죠아 작가들 자신까지도 이러한 종류의 《예술》은 대중들은 두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도 설명하기 힘들다》고 공공연히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부르죠아 예술이 인민들의 생활과는 얼마나 인연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술가들로 하여금 자기 인민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는가? 예술가가 언제나 자기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깊이 리해하고 인민적 리상을 높은 공민적 정열로 표현할 때만이 진정으로 사회적 의의를 가지며 인민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인민의 지향과 념원을 표현하며 그들에게 리해되며 사랑을 받는 예

술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정책을 깊이 알아야 하며 당적 사상 체계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당의 사상은 곧 인민의 리해관계를 가장 높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사상으로 고무될 때만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진정한 인민의 문학 예술을,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자유롭게 노래하는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성—바로 이것은 인민성의 최고 표현이며 위대한 예술을 낳게 하는 원동력이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이 해방 후 17년 간, 특히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천리마 시대에 그리도 훌륭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이 그들에게 우리의 영웅적 현실을 예리하게 보며 리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준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의 운명을 영원히 당에 의탁하며 당 없이는 자기의 존재도 자기의 창작도 생각할 수가 없다. 당의 의지와 사상으로 숨쉬며 투쟁하는 예술가는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인민의 감정, 사색, 의지를 통일시키며 그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레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문학 예술은 공산주의 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문학 예술이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 사업의 일환으로 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일관한 주장은 고전 계승 문제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유산 계승에서 우리 당은 허무주의적 경향과 함께 복고주의를 중요하게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과거의 민요 그대로를 존속함으로써만이 민족 문화의 계승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우리 민족 문화 발전의 기본 로선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선집, 제 3권, 1953년 판, 297폐지).

과거 유산을 계승함에 있어서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대하며 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을 리해하지 못할 때 락후하고 퇴폐적인 것까지도 복구하려는 경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프로레타리아 예술의 계급성과 혁명적 성격을 약화시키는 데로 이른다.

복고주의는 인민들의 혁명적 각성을 두려워하며 그들의 계급 투쟁을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영향에서 오는 것이며 사실상 퇴폐한 부르죠아 미학을 반영하고 있다. 복고주의는 결국 혁명적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며 본질에 있어서 부르죠아 사상에로의 전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과거의 유산을 계승함에 있어서 당은 항상 그것을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인민 대중의 생활 감정, 풍습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여 왔다.

례컨대 우리 민족 음악에서 남녀 성부를 구분하고 탁성을 제거하며 인민적 음악의 유산과 전통을 살리고 조선 바탕의 노래와 곡을 많이 창작하되 그것이 천리마 기수,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좋아하는 씩씩하고 락천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인 문화 예술 유산을 계승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 일떠선 혁명적 로동 계급의 견지에서 혁신하여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적 미학 사상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 실례의 하나로 된다.

당의 이와 같은 정확한 지도가 있음으로써만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선조들의 유산 중에서 선진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것, 혁명적인 것을 계승하여 오늘의 사회주의적 현실에 적응하게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으며 우리 민족 문화 예술을 찬란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문학 예술은 전면적인 개화기를 맞게 되였으며 고상한 공산주의적 사상성과 풍부한 예술성, 그리고 민족적 풍격으로 하여 세계 인민들로부터 《황금의 예술》로 불리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명백히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 *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제시한 력사적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우리 문학 예술이 개척하고 달성한 성과를 계속 공고히 하면서 그것을 가일층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공산주의적 당성을 부단히 련마하며 우리 당의 정책으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과 창작 사업에서 언제나 우리 혁명의 립장, 혁명의 관점에 튼튼히 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바로 조선 혁명을 하고 있으며 미제를 조국 남반부에 두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학 예술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혁명성과 자각성을 고무 추동하는 문학 예술로 되여야 한다. 때문에 우리 문학 예술은 보다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생활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문학 예술이 쌓아 올린 고귀한 금자탑은 모두 현실 생활과 련계를 강화하는 데서 얻어졌으며 생활의 한 복판에 튼튼히 뿌리를 두고 있는 데서 쟁취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문학 예술의 전투성, 혁명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부 남아 있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여기서 교조주의와 복고주의의 사소한 발현도 배격하고 투쟁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일부 남아 있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제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가 예술인들의 혁명가적 생활 기풍을 강화하며 생활을 검박하게 꾸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계속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문학 예술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업 정책 관철을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자

정 두 환

김 일성 동지는 지난 9월 3일~4일 각 도(직할시) 인민 위원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현 시기 상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분석하시고 이 부문 사업을 한 계단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 올릴 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김 일성 동지는 상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상업 일'군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상업에 대한 검열 제도를 확립하며 상업 일'군들의 사회적 지위를 더욱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상업의 구체적 문제들—식료 상업에서 전환을 가져 올 데 대한 문제, 상업 자체에서 일부 공업품을 생산할 데 대한 문제, 사회 급양 및 편의 시설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며 상품 공급에서 주문 제도를 철저히 관철시킬 데 대한 문제, 도매 상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상품 수송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데 대한 문제, 로동자구에 대한 상품 공급과 그의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문제, 상업 일'군 양성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업에서 모범시(구역), 군, 모범 상점, 모범 도매소들을 창설할 데 대한 문제, 상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상업을 일대 혁신할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이며 우리가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전투적 과업이다.

*　*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 당은 착취와 빈궁의 근원을 없애고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에서 이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놓았다. 이제는 전체 인민의 생활을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이 우리 당 앞에 나선 절실한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력사적인 제 4차 당 대회는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데 대한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 수행에서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며 사회 급양 사업과 편의 시설

부문 사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인민은 7개년 계획 첫 3년 간 과업 수행에서 결정적 해로 되는 금년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구매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이러한 사정은 한편으로는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여 그의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여 줄 것을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 생활에서 성숙된 이 요구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이것을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모든 인민적 시책의 성과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전체 인민이 다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기와 집에서 살도록 할 데 대한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당이 현 시기 상업의 개선 강화를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 일성 동지가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상업에서 주되는 부문이며 일등 가는 과업으로 되는 식료 상업을 혁신하는 것은 현 시기 당의 상업 정책 관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식료 상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일어 나고 있는 제 변화와 관련된다.

물론 식료 상업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는 오늘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당은 식료품 공업의 발전과 도시와 로동자구 주변에 공고한 채소 및 육류 공급 기지의 창설, 생산 기관, 기업소, 협동 조합들의 직매 상업의 강화, 수산업의 강화, 식료품 저장 기지의 창설, 식료품 수매 체계의 개편 등 일련의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취함으로써 식료 상업을 급속히 발전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식료 상업은 현실적 요구에 비하여서는 거리가 멀며 식료 상업 분야에서의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식료품의 품종을 다양하게 하고 그의 질을 높이며 모든 식료품의 공급 사업을 정상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며 식료 상업에서 반드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장성하는 의복류를 비롯한 일용 필수품 특히 아동용품에 대한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공업 부문에서의 일용품 생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상업 자체의 리용 가공 생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 급양 및 편의 시설 부문 사업은 인민들의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다.

식당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공동 주방으로서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을 더욱 용이하게 하며 그들의 가정 부담을 경감시키며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편의 시설 부문 사업도 그의 강화 발전이 없이는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려 나갈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 급양 및 편의 시설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의 시설망과 업종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며 이 부문 사업에 소요되는 설비, 기구, 비품들과 원자재 공급 체

제를 확고히 수립하며 이 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를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상품 공급에서 주문 제도—이것은 상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계획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제도이다.

김 일성 동지는 상품 공급에서 반드시 주문 제도를 실시할 데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주문은 어디까지나 인민들의 실생활과 나라의 생산 력량에 맞게 진행되여야 하며 주문된 상품은 최대한으로 보장되여야 한다.

주문 제도의 정확한 실시 —이것은 당이 상품 공급에서 철저히 견지하고 있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상업의 모든 고리에서 주문 제도를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야 하며 주문 제도에 대한 그릇된 관점과 태도에 대하여서는 강한 사상 투쟁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상품의 계획적인 생산, 계획적인 확보, 계획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도매 상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도매 상업 기관, 기업소는 소매에 대한 상품 공급자이며, 그리고 생산에 대하여서는 소비자를 대표하는 상업의 중요한 구성 환절이다. 그러므로 소매 상업의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도매 상업의 역할과 기능 여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매 상업에는 아직도 결함들이 있으며 특히 소매에 대한 상품 공급에서 주문에 의한 송달 공급 대신에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이 아직 완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 분배에서 평균주의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매 상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매 상업 기관, 기업소들을 튼튼히 꾸리고 도매 상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제를 강화하여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높여야 한다.

로동자구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루차 강조하시였고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는 로동자구 내 후방 공급 기관, 기업소들을 통일적인 계획 밑에 지도 장악하는 로동자구 경리 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로동자구에 조직된 경리 위원회들은 그 체계의 우월성으로 하여 후방 공급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케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금번 또다시 로동자구 내 주민들에 대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조직되여 있는 경리 위원회의 사업 경험을 정확히 총화하고 그 체계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동자구 주민들에 대한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시,군 인민 위원회들이 후방 공급 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고 로동자구 내 공급 사업, 편의 시설 부문 사업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세심한 관심을 돌리며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상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상업 일'군들과 사회 급양 및 편의 봉사 일'군들 즉 료

리사, 리발사, 수리 부문 일'군들을 체계 있게 양성하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상업, 사회 급양 및 편의 일'군 양성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는 동시에 상업에서 모범 시(구역), 군 모범 상점을 몇 개씩 만들어 그것을 상업 간부 양성의 중요한 거점으로 하고 상업 간부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모든 도, 시(구역), 군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철저히 립각하여 상업에서 모범 시(구역), 군을 창조하고 경험을 일반화하며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그를 상업에서의 근위 부대로 만들며 2~3년 내에 상업 부문의 간부 대렬을 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

현 시기 당의 상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각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상업 일'군들 속에서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그들의 사상 의식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업이 아무리 사회주의적 체계로 정연히 조직 정비되고 당의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실지로 상업을 관리 운영하는 일'군들 자체가 사회주의 상업의 본질을 모르고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확고히 준비되지 못함으로 하여 계급성, 군중성, 인민성이 부족하다면 상업에서 그 어떠한 새로운 혁신도 일어 날 수 없으며 상업 일'군들의 봉사성도 제고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상업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것이 상업 일'군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상업 일'군들에 대한 정치 교양 사업에서 첫째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 상업과 자본주의 상업의 차이를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우리 상업의 본질과 역할을 철저히 리해시키는 문제이다.

사회주의 상업은 《본질상 주민들에 대한 공급》(김 일성)이며 인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상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데 그 기본 목적이 있으며 자본주의 상업과 같이 돈을 벌기 위한 장사가 아니다.

사회주의 상업은 이와 같은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상업은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형태이다. 따라서 상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공업과 농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없으며 로농 동맹을 강화할 수 없으며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없다》(김 일성 선집, 제 5권, 35페지).

당 조직들은 상업 일'군들 속에서 우리의 상업은 자본주의 상업과는 달리 인민들에게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하는 부문이며 상업 일'군들은 귀중한 국가의 상품을 받아서 보관하며 그것으로 인민들의 입는 문제, 먹는 문제를 보장하고 있는 당의 상업 전사이며 사회주의 하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상업 일'군들이 사회주의 상업에 대하여 일층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 그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커다란 긍지를 느끼게 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봉사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당 조직들은 전체 인민들 속에서도 상업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정치 교양 사업과 사회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이 상업 일'군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경하며 상업을 백방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업 부문에서 당 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부문 내 당 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은 상업 일'군 대렬을 정치 사상적으로 견실하며 경제 생활에서 청백한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각급 당 조직들은 상업 부문 간부 사업을 차요시하는 사상 관점을 시정하고 어디까지나 상업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성이 강하고 열성이 높은 일'군들을 이 부문에 파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배치된 일'군들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지난 기간의 경험은 당 조직들이 상업 일'군 대렬을 꾸리는 데 그치고 그를 체계적으로 교양하지 않는다면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 조직들은 상업 일'군들과의 사업을 부단히 강화하여 그들이 사업에서 열성과 창발성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일상적으로 교양하고 돌봐 주어야 한다.

당 조직들은 상업 일'군들 속에서 당성 단련을 강화함으로써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지 못하는 현상, 국가 상품을 자기 재산과 같이 생각하지 않고 되는 대로 다루는 등등의 현상이 발로되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일'군들이 사업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자기가 맡은 지역 근로자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태도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상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각급 당 조직들은 행정식, 명령식 사업 방법을 없애고 당 정책을 항상 튼튼히 장악한 기초 우에서 대상 기관들의 사업에 대한 방향적인 장악과 함께 당 정책 집행에 대한 장악을 잘 하여야 한다.

또한 당 조직들과 지도 일'군들은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걸리고 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며 지도에서 한 점을 뚫고 그를 전반에 일반화하는 사업 방법을 잘 적용하여 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넘어 가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과 전체 상업 일'군들은 자기의 온갖 열성과 창발성을 다 발휘하여 상업을 일층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짧은 기간 내에 상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한 익 수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지 13년이 되였다.

오늘 6억 5천만 중국 인민은 모 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이미 쟁취한 위대한 승리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보다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다.

중국 혁명의 승리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은 중국 력사에서 근본적인 전환이였으며 위대한 10월 혁명 후 맑스-레닌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을 시위하는 가장 큰 국제적 사변이였다.

중국 인민은 이 때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적 봉건적 질곡을 벗어던지고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의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중국 혁명은,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아세아의 광대한 지역을 차지한 나라에서 발생하였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가장 큰 고리를 끊어 놓은 것으로 하여 제국주의 세력에 대한 심대한 타격으로 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평화와 사회주의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시켰으며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다.

혁명이 승리하기 이전 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심히 뒤떨어졌던 반식민지 반봉건 국가였다. 제국주의 렬강은 중국을 침략하고 략탈하기에 날뛰였으며 중국 인민을 모욕하고 업신 여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과거로 되였다.

오늘 중국의 광활한 땅 우에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고 날로 공고화되고 있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은 옛 중국의 면모를 일신하고 아세아 대륙에 거연히 솟은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였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중국 인민은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토대 우에서 제 2차 5개년 계획(1958~1962년)에 예견되였던 중요 지표들을 2년 간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제 2차 5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 공업 생산액의 년 평균 장성 속도는 40% 이상에 달하였으며 1960년의 공업 생산액은 혁명이 승리한 1949년에 비하여 15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야금 공업과 석탄 공업을 비롯한 전력, 원유, 화학, 각종 기계 제작 등 중공업의 주요 부문들이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특히 공작 기대 생산

량은 3배 이상으로 증대되였다.

인민 혁명 승리 후 북경, 심양, 상해, 무한, 제남, 광주 등에 현대적 대규모 기계 제작 공장들이 건설되였으며 기타 중국 각지에 중 소 규모의 기계 제작 공장들이 수 많이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오늘 중국은 고도의 정밀도를 가진 기계로부터 100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초중량 기계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종합 기대들, 자동 기대들 및 특수 기대들, 그리고 분사식 비행기, 대형 선박, 각종 자동차와 뜨락또르 등을 자체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 중국 공업의 생산 능력은 현저히 증가되였으며 기계 설비 및 주요 자재에 대한 자급률도 크게 제고되였다. 중국은 이미 자주적으로 기술이 비교적 복잡한 현대화된 수 많은 기업소들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게 되였다.

지난 13년 간에 중국에서는 수 많은 야금 기업소들이 건설되여 지금에 와서는 야금 기업소가 없는 성과 자치구는 하나도 없게 되였다. 지난 날 중요 금속 재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던 중국이 오늘은 이미 수백의 강종과 8,000 내지 9,000종의 각이한 규격 강재를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

연료 동력 생산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전력 공업 분야에서만도 지난 날 불과 몇 개의 발전소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신앙강 대발전소를 비롯하여 수십만 톤의 대형 기대를 가진 발전소들이 자체의 설계에 의하여 수 많이 건설되였다.

1960년에 중국에서는 화학 비료와 화학 약품을 생산하는 140 여개의 중 소 기업소들이 각 성, 자치구들에 건설되였다.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경공업, 지방 공업, 인민 공사에서 경영하는 소형 공업 등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1959년에 경공업은 1949년에 비하여 6배나 장성하였다.

작년에 상해, 북경, 천진 등의 경공업 기업소들은 400 여종의 새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고급 문화 용품과 일용품들을 자체로 훌륭히 생산하고 있다.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는 《4화》(기계화, 반 기계화, 자동화, 반 자동화) 운동으로 불리우는 기술 혁신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으며 1960년에는 공업 생산의 50% 이상이 기계화 또는 반기계화에로 이행하였다.

공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민 경제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2년에 41.5%였던 것이 1959년에는 67.5%로 제고되였다.

공업의 지리적 배치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 났다. 야금 공업, 전력 공업, 방직 공업 등은 모두 도시와 해안 지대에 집중되여 있었으나 지금은 전국의 거의 모든 성들과 자치주들에 새로운 공업 기지가 건설되였다. 내몽고, 신강, 청해, 감숙 등 지난 날 궁벽하였던 지역들과 인구가 매우 적은 도시들도 지금은 대규모의 공업 기지들을 가지게 되였다.

이 모든 것은 중국에서 현대적 공업의 튼튼한 기초가 이미 확립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중국 인민들은 농촌 경리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건국 이후 10년 간에 농업 총 생산액은 2.5배로 장성하였으며 농촌 기술 혁명 수행에서도 거대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관개 면적은 2억 4천만 무로부터 10 억무 이상으로 증대되였으며 관개 시설은 약 9배로 확장되였다.

그리고 1960년 말에 와서 농촌에서 보유한 뜨락또르 대수는 1957년의 3배에 달하였다.

《교육이 로동 계급의 정치를 위하여 복무하며 교육과 생산 로동을 서로 결합시키는》 중국 공산당의 교육 방침에 기초하여 선진적인 교육 체계가 확립되였으며 새 세대의 교육과 함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방 후 10 여년 간에 각급 학교 학생수는 비약적으로 장성하고 전국 학령 아동들의 취학률은 85%에 달하였으며 1960년 6월에 이르러 이미 1억 이상의 인민들이 문맹을 퇴치하였다. 오늘 인구 매 3명 중 1명은 각급 학교에 다니거나 문맹 퇴치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기사 기수의 수는 2배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도 현저히 높아졌다.

과학 연구 기관수는 해방 후 10년 간에만 하여도 20배, 그 연구 인원수는 50배로 장성하였으며 보건 의료 기관수는 1960년 6월에 해방 전에 비하여 107배로 증가되였다.

중국에서는 혁명적 문학 예술이 찬란히 개화되고 있으며 인민 대중 자신이 예술을 마음껏 즐기며 예술 활동에 광범히 참가하고 있다.

낡은 사회가 남겨 놓은 실업 현상은 이미 오래 전에 완전히 청산되였으며 전국 도시 인구 중 평균 매 5명당 2명이 취업하고 있다.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도 크게 개선되였다.

중국 인민은 이미 달성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앞으로 보다 큰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조절, 공고, 충실 및 제고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미 농업 생산을 발전시킴에 있어서와 인민 경제 전반을 공고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중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 세기적으로 물려 받은 경제 문화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빨리 건설하는 행정에는 많은 난관들이 동반될 수 있다.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는 최근 3년 간의 류례 드문 대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일정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약진 도상의 일시적인 난관이며 승리를 위한 난관이다.

중국의 영웅적 로동 계급, 인민 공사에 단합된 근면한 농민들 그리고 재능 있는 붉은 지식인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견지하고 부닥친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 타개하면서 새로운 승리를 달성하고 있다.

전국 인민이 농촌을 강력히 지원하고 있으며 수 많은 농업 기술자들이 당의 부름에 따라 자진 농촌에 진출하여 인민 공사원들의 영농 사업을 돕고 있다. 인민 공사원들은 토지 예비를 남김 없이 탐구 리용하는 《십변 리용(十邊 利用)》 운동을 비롯하여 토지를 개량 확장하며 퇴비를 증산 시비하며 관개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며 우량 종자를 선택 보급하며 병충해를 방지하고 농작물을 보호하는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지금 중국의 광활한 지역에서는 추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올해의 농사 형편은 매우 좋다. 하기 작물의 실제 수확고는 지난 해보다 많이 증가되였으며 추기 작물의 수확고도 작년도의 수준을 훨씬 릉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목축업, 채소, 과실류의 생산 형편도 좋다.

이러한 사실은 인민 공사 제도가 생활의 시련을 훌륭히 이겨 냈으며 그것이 중국의 농촌 실정에 적응한 사회주의적 대규모 협동 경리로서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여 준다.

각지 인민 공사들에서는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생산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광범한 농민들의 혁명적 열의를 가일층 고취하였다. 또한 인민 공사들은 대약진 이후에 건설된 농촌 수리 시설들을 더욱 확대하고 정비 강화함으로써 금년에 일부 지역들에 있었던 자연 재해를 성과적으로 극복 타개하였다.

지금 중국의 온 대륙은 금년도 농업 전선에서 거둔 승리의 열매를 조그마한 손실도 없이 거두어 들이는 한편 명년도 농업 생산 준비를 더 잘 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조절 방침은 공업 분야에서도 성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에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화학 비료 생산량은 38% 증가하였으며 공업 제품을 원료로 하는 주요 경공업과 수공업 제품의 생산액은 3분의 1이 더 증가되였다. 같은 기간에 현재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중공업 제품의 생산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사업이 개선되고 제품의 질이 제고되였으며 그 품종이 확대되고 원가가 저하되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이 높아졌다.

상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고 있으며 상품 공급량이 크게 증대되였다.

이 모든 것은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날이 갈수록 중국의 경제 형편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준다. 이것은 최근 진행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8기 제 10차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이 취한 모든 로선과 정책들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중국 인민은 이미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그의 전망은 더욱 휘황하다. 중국 인민은 인민 경제에서 조절 공고, 충실 및 제고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사회주의 건설을 새로운 위대한 앙양의 시기에로 들어 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치하게 확신하고 있다.

6억 5천만 중국 인민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 속에서 더욱 단련되였으며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의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튼튼히 결속되였으며 앞으로 더 큰 약진을 이룩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조선 인민은 간고 분투, 만난을 극복 타개하는 형제적 중국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서 무한한 고무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달성하고 있는 위대한 승리를 충심으로부터 기뻐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국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는 중국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이며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능숙하게 결합시킨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의 탁월한 령도의 결실이다.

중국 공산당은 레닌의 계속 혁명 리론을 중국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혁명 발전의 매 단계에 적응한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여 중국 혁명을 가장 가까운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모 택동 동지는 중국 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하기 직전에 벌써 중화 인민 공화국의 성립은 전국의 범위 내에서의 민주 혁명의 승리로 될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의 발단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49년 10월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 자본주의의 반동 통치를 전복하는 민주 혁명의 중심 임무가 수행된 조건하에서 중국 공산당은 혁명을 계속 추진시켜 사회주의 혁명에로 발전시켰다.

1949년 이후의 첫 몇 해 동안에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령도하여 토지 개혁과 관료 자본을 몰수하는 민주 혁명 과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하였다. 이리하여 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경제가 확립된 조건에서 그것을 더욱 강대한 것으로 발전시키며 전반적 인민 경제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권을 확립하는 문제가 첫째가는 혁명 임무로 제기되였다.

이 때 중국 공산당은 1952년에 《3반》, 《5반》 투쟁을 전개하여 부르죠아지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주의 상공업을 사회주의 경제에 복종시켰으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국가 자본주의에로 점차 나아가게 하였다. 공산당은 토지 개혁 후 제때에 농업 협동화 운동을 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농민들을 사회주의의 길로 인도하였으며 사회주의적 개조와 사회주의 건설을 동시에 병진시키는 과도기의 총 로선을 제시하였다.

이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농업 협동화와 자본주의적 상공업 및 수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성과 있게 완성되였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정치 사상 전선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계속 진행할데 대한 임무를 제기하고 1957년부터 1958년에 걸쳐 반우파 투쟁과 정풍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였다. 반우파 투쟁과 정풍 운동의 승리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전국 인민의 혁명적 적극성은 전례 없이 제고되였으며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총 로선의 기치 하에 마침내 대약진 운동이 일어 났다. 이 행정에서 인민 공사가 창설되여 농촌에서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중국에서 혁명을 부단히 발전시킨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은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단시일에 끝내고 대약진 기간에 경제, 문화 건설에서 전례 없는 앙양을 일으켰으며 자립적이고 완정한 현대적 인민 경제 체계의 토대를 축성케 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총 로선, 대약진, 인민 공사의 세 폭의 붉은 기치는 사회주의 건설의 실천 행정에서 그의 생활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는 새 사회 건설에서 중국 인민이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정확히 총화하고 자기 조국을 하루 빨리 부강한 선진 국가로 만들려는 중국 인민의 일치한 념원을 반영하여 제때에 고도로 열의를 높이며 앞장 서기에 힘 쓰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절약하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총 로선을 정식화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의 조건 하에서 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며 중공업과 경공업,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 대형 기업과 중 소형 기업을 동시에 병진시킬 것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두 다리로 걷는》 방침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내재하는 모든 가능성들과 6억 5천만 중국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력량을 남김없이 동원 리용케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킬 데 대한 총 로선의 기본 요구를 훌륭히 보장하였다.

자기 나라를 하루 빨리 세계의 선진 대렬에 올려 세우려는 중국 인민의 열렬한 지향은 대약진 운동을 통하여 이미 실생활에 구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앞으로 더욱 빛나는 결실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오늘 중국 인민은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농업을 인민 경제의 기초로 하고 공업을 그 주도 력량으로 할 데 대한 인민 경제 발전의 총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총 로선, 대약진, 인민 공사의 세 폭의 붉은 기치는 전체 중국 인민의 투쟁의 기치로, 중국 인민의 전진 운동을 이끌고 나아가는 승리의 기치로 되였다. 지금 중국 인민은 이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지난 날에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인민 경제를 조절 공고화하는 과업 수행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군중 로선이다.

군중 로선은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구체적 실정을 세밀히 료해 분석하고 정확한 정책과 방침을 세우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 나아가는 중국 공산당의 세련된 사업 방법이다.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는 인민 대중과 혈육 상련의 밀접한 련계를 맺으며 리론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맑스-레닌주의적 령도 방법을 전 당에 확립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구현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중국 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끌었으며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또한 계속 승리에로 향도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국 공산당의 제반 정책의 승리로 하여 당과 군중의 밀접한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광범한 군중 속에서 당의 위신은 더욱 높아졌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위하여 성심 성의로 복무하고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며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인민을 신임하며 인민과 항상 한 명어리가 되여 나아가는 군중적 령도 방법을 모든 간부들에게 체득케 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정치를 선행시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전개하여 온 훌륭한 결과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계속 정확히 령도하고 그의 위대한 창조력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중국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지 않고도 살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들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한 모 택동 동지의 말씀을 실생활에 훌륭히 구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확립하였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위대하고 로련한 맑스-레닌주의 당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이 쌓은 고귀한 경험은 맑스-레닌주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으며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해방 운동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무한히 충실할 뿐만 아니라 평화와 혁명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 운동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강화 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일관된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철저한 투쟁으로 하여, 자유와 독립과 민족적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전 세계 인민들 특히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여 전체 진보적 인류의 일치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그의 국제적 위신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시종일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 아직도 인류의 많은 부분이 자본의 철쇄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적극 지지 원조하는 것을 혁명에서 먼저 승리한 인민들의 응당한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이 레닌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인민을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위력과 그의 국제적 영향력이 날로 장성하고 있는 데 겁을 먹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민 중국을 압살하려고 악랄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제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 본토에 대한 도발 행동을 부단히 감행하고 있으며 장 개석 도당을 사촉하여 가소롭게도 대륙 연해 지역에 기여 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2》 간첩 비행기를 날려 보내는 것과 같은 침략 행동까지도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어떠한 침략 책동도 결코 중국 인민을 놀래울 수 없으며 그들의 승리적 전진을 가로 막을 수 없다. 전체 인민이 한 손에는 망치와 괭이를, 다른 손에는 무장을 들고 모두다 생산과 국방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선 인민 중국은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불패의 대강국이다.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은 오랜 세월을 두고 고난을 같이 하여 온 친근한 이웃이며 공동의 원쑤 제국주의 침략자

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깨뜨릴 수 없는 전투적 우의를 맺은 의좋은 형제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중국 대륙에 침략의 마수를 뻬쳤을 때 조 중 량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서로 어깨를 겯고 장기간에 걸친 피어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두 나라 인민과 당들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의 뿌리 깊은 전통을 이루어 놓았다.

조 중 량국 인민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는 두 나라가 해방된 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중국 인민은 조선 인민의 조국 해방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조직된 지원군을 파견하여 우리를 피로써 도와 주었으며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는 우리에게 막대한 물질적 원조를 주었다.

중국 인민이 조선 인민에게 준 이러한 원조는 간고할 때일수록 혁명적 동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 나서는 진정한 공산주의적 전우들 간의 숭고한 의리를 구현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산 모범이다.

조 중 량국 인민의 친선 단결과 협조 관계의 발전에서 거대한 력사적 사변으로 된 것은 작년 7월 김 일성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의 중국 방문과 조 중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의 체결이다. 이 조약의 체결은 조 중 친선을 더욱 강화하며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할 데 대한 두 나라 인민의 일치한 결의를 시위한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영광스러운 중국 공산당과 위대한 중국 인민과 함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어려운 짐을 갈라 지고 생사 고락을 같이할 것이며 공동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영원히 굳게 손을 맞잡고 나아갈 것이다.

조 중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과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단결의 강화는 동방에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종국적으로 구축하고 항구한 평화를 쟁취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힘으로 된다.

형제적 중국 인민이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하고 있는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 조선 인민에 대한 그들의 다함없는 우의의 정신—이것은 조선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며 적극적인 지지로 된다.

조선 인민은 중국 인민이 장기간에 걸친 간고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는 강의한 혁명 정신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지하게 배울 것이다.

조선 로동당과 조선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6억 5천만 중국 인민이 이미 축성하여 놓은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가까운 앞날에 인민 경제의 새로운 전면적 앙양을 가져올 것이며 자기 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농업,. 현대적 과학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시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부르죠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침습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오늘 세계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장성하고 있으며 모든 대륙에서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식민지 체계의 운명이 더욱더 종말에 가까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적 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날로 앙양되고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광포하게 되여 가고 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군비 경쟁의 격화와 새 전쟁 도발로써 자기들의 운명을 멸망으로부터 건져 보려고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침략 전쟁 준비에 최근 더욱 광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전쟁》에 점점 더 집요하게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포에 의한 전쟁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상 전쟁》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지껄이고 있다.

이것은 결코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지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땅 우에는 이미 그들이 발붙일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지반이 없어졌고 세계의 기타 지역에서도 인민 대중 속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견인력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자본주의 나라 인민들을 부르죠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아 두며 우리 진영 내부에 부르죠아 사상을 전파시키는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실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적 침습에 맹렬하게 날뛰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 제도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비방 중상을 퍼부으면서 자본주의 세계의 《자유》에 대하여 계속 헛나발을 불어 대고 있으며 말사스주의, 실존주의 등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류포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산주의를 리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상도

진리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새로 내놓을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성은 전 세계 인민들의 눈 앞에서 실천적으로 점점 더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제국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보다도 우회로를 통하여 앞잡이들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혁명적 사상을 거세하고 혁명 대렬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데 더욱 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찌또 도당을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상 전쟁》에서 주되는 목적을 광범한 대중의 계급 의식,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데 두면서 이를 위하여 퇴폐한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을 중요한 무기로 삼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저속하고 색정적이며 패덕적인 영화, 출판물, 쟈즈 음악 등등으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세계의 광범한 지역에 전파시킴으로써 인민 대중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며 그들을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와 동물적인 향락주의에 물젖게 하려 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고 예속화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주되는 사상적 수단으로 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세계 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치렬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령역에서의 심각한 계급 투쟁, 사상 투쟁은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을 인민 탄압에 내몰면서 부단히 전쟁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도당을 결탁시켜 북반부와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도구로 삼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최근 급격히 장성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의식을 마비시키며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주는 혁명적 영향을 막아보려고 우리 제도와 공산주의를 비방하며 미국식 생활 양식을 퍼뜨리기에 광분하고 있으며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 책동과 전쟁 소동으로써 부단히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속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적대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르죠아 사상과 준동하는 적들에게 발붙일 틈을 줄 수 있는 바탕으로 되는 우리 내부의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회주의 건설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해서도 부르죠아 사상 잔재와의 투쟁이 긴절한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단계에 도달하여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와 질서가 점점 더 째이고 대중의 의식성과 요구 수준이 비상히 높아졌으며 사회 발전의 템포가 몹시 높은 이 때에 낡은 사상 잔재는 우리의 전진 운동을 눈에 띄우게 장애한다. 우리는 오늘 낡은 사업 방법, 사업 기풍, 생활 기풍의 기초로 되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철저히 청산함으로써만 더욱 성과적으로, 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현 시기 우리 혁명이 처한 이상과 같은 모든 국제 국내 정세는 부르죠아 사상과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반대하며 우리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 한층 강화하며 모두가 공산주의의 혁명적 사상, 혁명적 기풍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할 데 대한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절하게 제기하고 있다.

* *

오늘 우리의 사상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르죠아 사상과 퇴폐적인 부르죠아적 생활 기풍이 들어 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처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바탕으로 될 수 있는 안일성, 해이성과 권태증을 경계하는 문제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천리마의 진군을 전개하고 있으며 적들을 불안케 하는 거대한 성과를 쌓고 있다. 공산주의 교양에 대한 당의 정확한 방침을 받들어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이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되여 있으며 근로자들은 혁명 선배들처럼 공산주의적으로 살며 일하며 부단히 전진하고 혁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사상 투쟁과 혁명적 수양을 약화시킨다면 안일성과 해이성이 나올 수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은 류례 없는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만약 사상 투쟁이 약화되고 수양을 게을리한다면, 성과에 자만하고 유족한 생활에 도취하여 긴장을 풀고 더 편안하게 지내려 하는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 잔재가 머리를 추켜 들 수 있고 안일성, 해이성이 발로될 수 있다.

우리 인민은 또한 장기간에 걸쳐, 해방 후만 하여도 17년 동안이나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1이 해방된 데 불과하다.

혁명은 여전히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허다한 난관을 극복하고 헌신 분투하여야만 조국의 통일 독립을 달성하고 전국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완성할 수 있다. 세계 혁명은 더욱 장기적이다. 모든 나라들에서 혁명이 승리하고 공산주의의 붉은기가 나붓길 때까지는 보다 장구한 세월과 긴장된 투쟁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편에서 만약 사상 투쟁과 자체 수양이 약화되면 일신의 안온한 생활을 갈망하는 부르죠아적, 소부르죠아적 사상 잔재에 못 이겨 권태증을 발로시킬 수 있다.

어려운 환경에 견디여 내지 못하는 데서 권태증이 생긴다면 순탄한 환경에서 해이되여 안일성, 부화가 나온다.

그러나 량자는 다 같이 일신의 안락과 향락만을 탐내는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긴장되고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물러 서는 현상이다.

안일성과 권태증, 이것은 공산주의적 혁명 기풍과는 하등 인연이 없는 부르죠아 사상의 발현으로서, 오늘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천리마의 시대,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질풍의 시대에 비록 일부에서나마 사람들이 안일성과 권태증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업을 정체시키고 동지들과 집단의 전진을 지연시킬 것이다. 안일하고 해이된 자는 답보와 락후를 면치 못할 것이고 부화할 수 있으며 권태를 느끼는 자는 사업에서 의욕을 잃고 자기 임무 수행을 태공하며 대렬에서 물러 설 수 있다.

우리는 세계 반동의 괴수 미제와 직접 대치 상태에 있으며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들은 지어 군사적 도발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만약 우리 대렬 내에 조금이라도 안일성과 권태증을 발로시킨다면 그것은 마치 도적 앞에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이 적들의 반혁명적 책동에 틈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된다. 간악한 원쑤들은 언제나 우리가 안일해지고 권태증에 빠질 것을 노리고 있다.

현 시기에 안일성과 권태증이 특별히 유해한 것은 만약 그것이 발로되면 부르죠아 사상과 불건전한 양풍을 받아들이고 길러 내는 바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일과 권태, 이러한 것이 사상과 생활에서의 타락으로 떨어질 때 혁명에 어떤 엄중한 해독을 끼치는가는 력사적 경험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안일성과 권태증이 생기지 않고 불건전한 생활 기풍과 적대 사상이 들어 오지 못하게끔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사상 교양과 사상 투쟁으로써 근로자들을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 속에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 *

혁명적 사상과 혁명적 기풍은 혁명적 실천 행정에서 부단한 수양과 사상 투쟁을 통해서만 확립하고 견지하고 강화할 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 사상, 혁명적 기풍은 결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도 실천과 수양을 통하여 가질 수 있으며 가졌던 사람도 주체적 수양을 약화시킨다면 그것을 잃어 버리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수양과 단련으로써 혁명정신을 강화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 기풍을 견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 로동 계급의 투사들은 자기 인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해방하며 세계를 개조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만큼 전 생애를 공산주의 위업에 바쳐 끝까지 싸우고 혁명적 지조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계급적 각성을 와해시키는 수정주의와 혁명적 실천과 유리된 교조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들이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그 원리를 창조적으로 구현하며 인류를 해방하고 세계를 개조하여야 할 사명을 끝까지 훌륭하게 수행하자면 계속 꾸준히 배워야 하며 부단히 수양을 쌓아야 한다.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우리의 수양과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르죠아적, 반맑스주의적 사상 요소를 당장에 식별하고 격파하며 혁명의 우여 곡절에서 어떤 불의의 경우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추호의 동요 없이 능히 계급적 립장,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며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수호하여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사상적으로 철저히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의 사상 의식을 명확한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으로, 확고한 신념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오늘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며 특히 지도 일'군들의 맑스-레닌주의 리론 수준을 한층 더 제고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천리마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당 정책 관철에서 일'군들의 사업 수준을 더욱더 높이며 계급적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우리의 력량을 계속 강화하는 데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때문에 당은 전 당이 학습하며 특히 간부들의 리론 학습을 강화하는 문제와 근로자들 속에서의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세계관을 확립시키는 데까지 심화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혁명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은 혁명적 생활 기풍, 사업 기풍, 사업 방법을 확립하는 전제로 된다.

혁명적 생활 기풍, 이는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를 물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그러한 생활 기풍이다. 그것은 검박하고 겸손하게 생활하는 태도이며 어떻게 하면 혁명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항상 궁리하는 태도이며 자기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처리하는 생활 태도이며 기풍이다.

항일 빨찌산들의 생활—그것은 바로

혁명적 생활 기풍의 구감이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혁명적 기풍을 수립하고 견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곤난에 부닥쳐도 굴함이 없고 승리와 성과에 도취함이 없이, 안일과 권태를 모르고 계속 난관을 돌파하며 전진할 수 있으며 부단히 혁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할 수 있다.

우리들은 혁명적 생활 기풍으로 무장함으로써만 당 정책을 옳게 받아 물 수 있으며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뛰여 들 수 있다. 혁명적 생활 기풍이 없이는 혁명적 사업 기풍도 혁명적 사업 방법도 나올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당 제 4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언제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자체 수양의 강령적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의 첫 고지를 점령한 데 불과하며 우리 앞에는 어렵고 더욱 큰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며 달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야 한다고 한 위대한 레닌의 교시를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승리에 도취하고 교만하게 되는 자는 실패를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자만 자족하지 말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부화와 안일을 배격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며 겸손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 선배들이 백두산에서 싸우던 그 정신으로 살며 일하며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들은 항일 빨찌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혁명적 세계관, 맑스-레닌주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 기초하여 조국과 혁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끝까지 싸우며 전진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자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물과 풀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락원을 건설하고야 마는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풍으로 살며 일하며 싸워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은 바로 혁명 선배들처럼 혁명적 실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 속에서 꾸준하고 정력적인 학습과 수양과 사상·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과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미국식 생활 양식》

김 경 현

오늘 남조선에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부식되여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풍습과 민족 문화를 파괴하며 근로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황금 만능》, 략탈, 부화 방탕, 《반공》 히스테리 등으로 특징 지어지는 《미국식 생활 양식》은 극도로 타락한 미국 착취 계급의 생활 양식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허무와 색정, 극단의 개인 리기주의를 설교하는 실용주의, 실존주의 등 반동 철학을 토대로 하여 형성되였으며 온갖 범죄로 일관된 부르죠아 도덕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이러한 반동적 본질로 하여 미제는 그것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예속하기 위한 침략 수단으로, 사상적 무기로 리용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도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노예화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미국식 생활 양식》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정체를 폭로하며 그를 반대 배격하는 투쟁은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과 민족 문화를 고수하며 남조선 근로자들의 혁명 의식을 제고하며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극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1

《미국식 생활 양식》은 근로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와 억압, 학살과 략탈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빚어 낸 추악한 생활 양식이다.

그 어떤 생활 양식보다도 가장 략탈적이며 퇴폐적인 이 생활 양식은 미국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자본가들 속에 형성된 비인간적 도덕 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민족이 형성되기 시작한 15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미국 자본가들은 치부를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원주민들을 야만적으로 혹사하며 학살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백 수십 차의 침략 전쟁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자본가들은 야수적 살륙으로써 무고한 민족들의 재부를 략탈했다.

미국 자본가들은 원주민들을 멸족시키기 위하여 1703년 식민지 맛싸추제스 립법 회의에서 인디안의 머리 가죽 한 장에 40파운드의 상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며 비률빈을 침략할 때에는 아무런 무장도 없는 소수 종족인 모르족 600 여명을 최후의 한 명까지 몰살했다.

이 미국 자본가들의 후예들은 오늘 로동자들을 착취함에 있어서도 가장 야수적이며 잔인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테일러 제도와 포드 제도 등 고한 (膏汗) 제도의 고안자들은 바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다.

바로 이렇게 치부를 위하여 원주민들

을 야수적으로 혹사 살륙하며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며 타 민족을 략탈 살륙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미국 자본가들의 야수성과 잔인성은 그들의 생활 양식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되였다.

미국 자본가들이 자국 내 근로자들을 착취하며 타 민족을 략탈하여 축적한 거대한 부는 그들이 추악한 개인 향락과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밑천으로 되고 있다.

미국 총 인구의 1%도 못 되는 독점 자본가들은 미국 총 재산의 28%에 해당한 재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 재부로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변태적이며 말세기적인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작년에 미 독점 재벌 멜론은 18세 나는 자기의 딸을 사교계에 소개하기 위하여 100만 딸라를 들여 연회를 차렸다. 이 금액은 미국에서 높은 수입을 가진 400명 로동자의 1년 간 총 수입을 합친 것에 해당된다.

략탈한 재부에 기초한 부화 방탕한 생활 —이것이 미국 자본가들의 또 하나의 생활 리념으로 되였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정신적 기초는 미국 자본가들의 경제 생활의 구체적 반영인 극단한 개인주의와 《황금 만능》의 사상에 있다.

《황금 만능》—이것은 바로 《미국식 생활 양식》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미국에서 황금은 영예나 량심보다도 그 어떤 직위나 자질보다도 귀중한 것으로 되여 있다. 황금은 온갖 물질적 및 정신적 부를 살 수 있다. 아무리 높은 벼슬도, 아무리 큰 저작도 바로 이 황금으로 좌우된다. 시인의 정서도, 작가의 량심도, 과학자의 지식도 이 황금에 팔리고 있다.

오늘 미국에는 심지어 학위 론문을 대신 써 주고 돈을 받는 기관까지 있다. 이 기관의 솜씨 있는 전문가들이 써 주는 《박사》 또는 《학사》 론문에는 3,000 딸라라는 정가표가 붙는다고 한다.

《황금 속에서 형성》된 미국의 도덕은 인간의 모든 가치를 황금으로써만 측정한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라도 황금을 모은 사람은 《선》한 사람,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로 미국에서 황금으로써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

《황금 만능》이 미국 자본가들의 생활 신념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양키 문화는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주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양키 문화는 독점 자본가들이 략탈과 착취를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통제되는 문화이며 관능적 향락을 일삼는 가운데서 형성된 부패 타락한 문화이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양키 문화를 통하여 인민들 속에 허무와 색정, 극도의 개인 리기주의를 설교하는 한편 《반공》 선전을 발광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공직에서 일하자면 《반공산주의 선서》를 해야 한다. 이 《선서》는 모든 령역에서 강요되고 있다. 악명 높은 《타프트 하트리법》은 로동 조합을 공인할 데 대한 필수 조건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허무와 색정, 개인 리기주의, 《반공 히스테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였다.

제반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 착취의 야수성과 추악한 양키 문화와 결합된 《미국식 생활 양식》은 약육 강식의 부르죠아 생활 양식의 표본이다.

그런데 오늘 미제와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하느님》에 의하여 주어진 《최고의 생활 양식》이라느니, 《리상적인 생활 양식》이라느니 하며 그의 부패성과 침략성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범히 류포되고 있는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들의 실천 활동 즉 보다 많은 리윤을 가져다 주는 행동만이 실속 있는 생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식 생활 양식》의 《물질적 기초》로 되고 있는 독점 자본가들이 축적한 부와 그의 《정신적 기초》로 되고 있는 극단한 개인 리기주의를 선전하며 정당화하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적 향락만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행복》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식 생활 양식》의 허무와 색정, 절망 등 온갖 패덕적인 측면을 변호하려 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을 미화하는 데 있어서 꼬쓰모뽈리찌즘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꼬쓰모뽈리트들은 《민족 련합》이니, 《세계 정부》니 라는 간판 밑에 매 개인의 조국은 전 세계라고 떠벌리면서 자기 조국과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 나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이러한 설교는 민족적 독립을 거부하며 민족의 전통, 민족 문화를 거부하는 매국 배족적 사상을 부식시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쉽게 하려는 것이다.

미제와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온갖 반동 사상으로 《미화》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세계 각국 특히 저들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들에 전파하기 위하여 각종 물질적 수단과 선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오늘 《미국식 생활 양식》이 부식된 모든 나라에서 례외 없이 대중의 계급 의식, 혁명 의식이 마비되고 민족 문화 전통은 파괴 유린되고 있으며 패덕과 타락이 범람하고 있다.

2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친미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켜 왔다.

미제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젖은 자기의 주구들을 괴뢰 행정 상충부는 물론 많은 교육 문화 기관들에까지 배치했다.

이 자들은 《직권》을 리용하여 남조선 인민들 속에 미국을 세계에서 《으뜸 가는 자유 국가》로, 양키를 《선량한 인간》으로, 미제의 문화와 생활을 《인간 생활의 최고 척도》라고 묘사하면서 로골적으로 《숭미 사상》을 고취하였다.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전파 부식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한 미 공보원》이다.

1954년 7월, 미 국회 량원 합동 회의에서 서울 주재 미 《공보원장》 슈바카라는 자는 미제의 남조선에 대한 정책에 언급하여 《오늘 미국은 물자 수단보다도 오히려 정신적 문화 교류에 치중해야 하며… 미국인들의 사고와 생활 양식을 선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의 주요 도시들과 군, 읍, 동에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 《공보원》은 《미국 문화의 소개》라는 간판 밑에 직접 또는 괴뢰 선전 기관을 통하여 《미국식 생활 양식》을 적극 퍼뜨리고 있다.

《문화 교류》라는 미명 하에 미국 《공보원》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묘사

한 영화, 음악 등 문학 예술 작품들을 적극 끌어 들이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화, 음악 등 예술 작품이 대중의 정신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것이 인민의 지향과 그의 진실한 생활을 반영할 때 대중을 교양하는 강력한 수단의 하나로 되나 그와 반대의 경우에는 그만큼 대중의 정신 생활에 미치는 해독이 크다.

미국의 문학 예술 작품들은 허무와 색정, 굴종과 절망, 극도의 개인 리기주의를 설교하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주입하는 침략의 무기이다.

미국 《공보원》은 괴뢰 교육 기관을 통해서도 《숭미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하기 위한 사상적 머슴'군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한 미 교육 교환 협정》은 미국과 남조선 간에 교수들을 교환하여 강연하며 남조선의 반동 학자들을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인들의 사고와 생활 양식을 체험시켜 한국에 와서 전파》할 것을 목적하고 있다.

《기술 원조》라는 명목 밑에 남조선에 끌어 들인 미국 기술자, 전문가들도 남조선 인민들에게 모두 《반공》 사상과 《미국식 생활 양식》 주입에 복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식 생활 양식》이 부식된 결과 오늘 남조선에서는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 대신 세기말적인 패덕과 범죄가 점점 조장되고 있다.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며 서로 돕고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아 가는 아름다운 생활 풍습을 자랑하여 왔다.

이 아름다운 생활 풍습은 사회주의가 현실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활짝 꽃피고 있다.

그러나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으로 하여 《황금 만능》, 극단한 리기주의, 만인은 만인에 대하여 승냥이라는 약육 강식의 생활 양식이 범람하고 있다.

미제의 비호 하에 지주, 자본가들은 야수적 방법으로 남조선 인민들을 수탈하여 호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남조선 인민들은 《4,000년 래의 민생고》에서 허덕이고 있다.

물질적 생활 처지에서의 이와 같은 극단의 두 대조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남조선에 빚어 낸 후과의 하나이다.

미제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전파된 남조선에서 마치 인민들의 생활이 《자유로운》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배움터를 잃고 밥을 굶어야 하며 몸을 가눌 한 간 방도 가지지 못하여 류랑 걸식하는 수백만의 근로 인민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남조선이 《자유로운》 땅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근로 인민에겐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이 암흑의 땅, 기근의 땅, 죽음의 땅으로 되고 있다. 오직 매국 배족을 일삼는 원쑤들에게만 《자유로운》 땅으로 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한 부르죠아 학자까지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빵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가 실질적인 자유로 되려면 경제적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 사회(자본주의 사회)가 내세운 자유는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고 형식적인 자유다. 그것은 산 자유가 아니고 죽은 자유다》.

해방 후 남조선에는 양키들의 본을 따라 소위 깡패라는 무리들이 도시마다에 횡행하면서 양키들과 함께 살인, 략탈, 테로, 강간 등 흉악 무도한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깡패들은 일정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목들은 직접 미제 및 그 주구들과 결탁되고 있다. 이 깡패들은 인민들의 재산을 백주에 습격 략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또는 애국적 운동을 탄압 박해하는 파쑈적 도구로서 리용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깡패들의 《범죄》 건수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남조선 통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월 중 서울에서는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만 해도 2,945건이 발생되였다. 이것은 작년 동기에 발생한 살인범, 강도범, 절도범까지 모두 합친 총수보다도 413건이나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군사 파쑈 도당들이 《깡패 일소》니 뭐니 떠들고 있지만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깽의 《조국》인 미국의 식민지이며 미국 침략 군대가 직접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의 사회적 조건에서 《깡패 일소》란 바늘 구멍에 황소를 몰아 넣으려는 격이다.

《미국식 생활 양식》의 침습으로 인하여 남조선에서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 문화는 횡폭하게 유린 당하고 있다.

서울 도심 거리를 구경하고 난 어떤 외국 기자는 자기가 미국에 간 것인지 남조선에 온 것인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썼다. 그도 그러할 것이, 라지오에서, 카페와 다방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은 미국의 쨔즈 뿐이고 네거리 교차점 게시판은 미국의 깽, 색정 영화 광고로 단장되여 있기 때문이다.

양키 문화의 침습은 조선 인민이 오래 전부터 사랑해 온 민요, 창극 등을 저속한 쨔즈, 쇼로 전락시켰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국 침략군을 《위안》하기 위하여 복무하고 있는 쨔즈 악단들과 쇼들의 수만 해도 60 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쨔즈를 남조선에 전파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놀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는 아름다운 조선 민요를 쨔즈화한 《아리랑 만보》, 《도라지 만보》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식 생활 양식》에 물젖은 자들은 《춘향》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도 춘향에게 양장을 시켜 리 몽룡을 상대로 양주와 커피를 마시는 양갈보로 등장시켰으며, 리 몽룡은 미국제 권총을 차고 로이드 안경을 쓰고 활개치는 괴한으로, 춘향의 옥중 소식을 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방자는 자전거를 타고 날뛰는 깡패로, 향단이는 딴스에 미쳐 난 탕녀로 묘사하고 있다.

남조선 영화계에서 《미국식 생활 양식》을 선전하는 양키 영화는 판을 치고 있다.

최근 년간 미제는 서부 활극과 말세기적인 900 여편의 영화를 남반부에 강매했다. 미제는 그 수입 관세조차 철폐하고 수입 영화의 80% 이상은 자기의 것을 사 들이게 하고 있다.

《절망의 순간》이라는 이른바 미국 영화는 《깽》의 범죄 행위를 《영웅담》으로 례찬하였고 《보이 한트》라는 색정 영화는 탕녀들이 벌거 벗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남자를 골라 내고 있는 것이 그의 주제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양키 문화는 인민들 속에서 허무와 색정주의를 부식시키는 한편 《반공》 히스테리를 적극 조장하고 있다.

《반공》 히스테리는 《미국식 생활 양식》의 주요 측면을 이루고 있는만큼 이것이 남조선 문학 예술에서 활기를 띠고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현실을 악랄하게 외곡 비방하며 인간 증오와 침략적 전쟁 사상을 고취하고 있다.

《반공》 사상을 고취하는 영화 《나는 고발한다》를 보더라도 악질적인 반혁명 분자를 통하여 북반부의 사회 제도와 사회주의 건설의 빛나는 성과를 중상 비방케 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여 있다.

남조선에 조성된 이 모든 추악한 현실이 《미국식 생활 양식》의 산물이다.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조선 사람이라면 그 누가 오늘 남조선에 부식된 《미국식 생활 양식》의 후과에 대하여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우기 《미국식 생활 양식》이 남조선 청소년들을 양풍으로 병들게 하며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때 도저히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태 앞에서 민족의 지조 굳은 남반부 인민들 속에서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는 《미국식 생활 양식》이 《양인들에게는 통하는 풍습이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설다…아메리카의 사고가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 잡지 《신태양》도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미국식 생활 양식》은 《도덕에 악마적 영향을》 준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제 강도들이 《미국식 생활 양식》으로써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생활 풍습과 민족 문화를 짓밟으며 《아메리카의 사고》를 강요하며 타태와 무기력, 굴종과 절망의 사상을 부식하기 위하여 아무리 발광한다 할지라도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킬 수는 없다.

남조선에 침습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를 부식하고 있는 장본인인 미제를 몰아내며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려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반미 구국 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문화를 존중히 하며 우리 인민의 미풍 량속을 적극 내세우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미국식 생활 양식》을 때려 부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미풍 량속과 민족 문화는 활기 있게 피여 날 것이며 인민들의 혁명 의식은 더욱 거세찬 불'길로 타오를 것이다.

신말사스주의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류 재 만

신말사스주의는 침략과 전쟁을 고취하며 근로자들의 빈궁과 기아, 실업을 합리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중요한 사상적 도구의 하나다.

오늘 남조선에서 신말사스주의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광범히 류포되고 있으며 가장 악랄하게 미제의 식민지 정책에 복무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더욱 요란스럽게 선전되고 있는 《산아 제한》과 《해외 이민》 등 박 정희 도당의 매국 정책도 신말사스주의를 《리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때문에 현 시기 신말사스주의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신말사스주의는 제국주의 시기, 특히는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 시기의 말사스주의다.

말사스주의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자본주의 모순이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영국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시종일관 극반동의 이데올로기로서 복무하였다.

그의 창시자 말사스에 의하면 빈궁의 원인은 자본주의적 착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수단보다 인구가 더 급속하게 장성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빈궁을 없애기 위하여 결혼과 산아를 제한하여야 하며 심지어 전쟁과 질병, 자연 재해는 과잉 인구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껄였다.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철저히 타격 받은 말사스 인구론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이행하면서 독점 자본가들에 의하여 신말사스주의로 재생되였다.

신말사스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말사스의 낡은 《리론》과 아무러한 차이도 없다. 신말사스주의가 종전의 낡은 《리론》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만 가일층 부패 타락하고 반동성이 더욱 로골화된 데 있을 뿐이다.

신말사스주의의 중요한 특징은 부르조아 일반의 계급적 리익이 아니라 제국주의 독점 부르조아지를 위하여 복무하는 데 있으며 근로 대중, 맑스-레닌주의 당,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데 예봉을 돌리는 데 있다.

그의 특징은 또한 단순히 자본주의 제도를 미화하고 산아 제한을 설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공공연히 타국을 침략하며 사회주의 국가와 약소 민족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찬미하고 정당화하는 데 있다.

신말사스주의는 말사스의 낡은 《리론》이 이미 력사적 사실에 의하여 격파된 조건 하에서 매우 교활하고 은페된 형태로 출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각종 부르조아 반동적 《리론》과 결합하여 각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 신말사스주의가 인종론, 인간 증오 사상, 지정학, 꼬스모뽈리찌즘 등과 결합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침략 전쟁의 무기인 신말사스주의는 항상 가장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나라들에서 제일 많이 성행하였다.

신말사스주의가 제 1차 세계 전쟁 이후에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뭇쏘리니, 일본의 도죠 등 파쑈스트들에게서 《령토와 자원은 부족한데 인구 밀도가 많아 령토를 확장해야 된다》는 침략 사

상의 리론적 무기로 되였고 제 2차 세계 전쟁 이후에는 제국주의의 아성인 미국이 신말사스주의의 본거지로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 미국의 신말사스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의 전쟁 방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전쟁은 《진보와 자연 도태의 무기》이며 《지상 과잉 인구》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뻰델이라는 자는 전쟁의 방법으로 세계 인구를 3분의 1로 축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탐슨이라는 자는 자기 저서 《태평양에 있어서 인구와 평화》에서 《구미 선진국의 정치 경제적 지배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아세아 지역의 인구를 결정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쓰고 있다.

신말사스주의의 이러한 인간 증오적 사상을 폭로하면서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미 제국주의자와 그들의 고용 학자들은 전쟁과 략탈의 류혈적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구상 인구 과잉에 관한 학설을 류포시키며 대량적 인명 학살을 호소하며 원자 무기와 세균 무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선집, 제 4권, 1954년 판, 270페지).

❊ ❊

미제는 현 시기 식민지 예속국들에서 신말사스주의를 광범히 류포시킴으로써 이 나라들에서 생활 처지의 악화가 제국주의자들의 수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구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공공연히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예속국의 지배를 변호하고 있다.

례하면 미국의 신말사스주의자 넉시는 《과잉한 인구에 비해 천연 자원과 자본이 부족한》 후진국에서는 《빈궁의 악순환》이 작용하므로 영원히 《후진국》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후진국》들이 미국의 예속 하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껄이고 있다.

미제는 자기들의 식민지인 남조선에서 신말사스주의를 더욱 널리 류포시키면서 남조선을 말사스의 《인구론》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의 생활 처지가 매우 참혹한 조건 하에서 파렴치한 미제도 이것을 도저히 은폐할 수 없게 되였으며 따라서 미제는 8.15 해방 후 저들의 식민지 통치가 빚어 낸 경제적 파탄과 인민들의 생활난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반동적 《리론》을 리용하게 되였다.

여기에서 신말사스주의는 해방 직후부터 미제의 중요한 침략 사상으로 되였다.

특히 정전 후 미제는 더욱 발악적으로 말사스 《인구론》을 류포시키고 있다. 그것은 그들이 전쟁 시기나 그 이전 시기처럼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처지의 악화를 일제 통치의 후과와 전쟁의 《특수한 상태》라고 인민들을 기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미제는 심지어 유엔의 문헌까지 리용하면서 신말사스주의를 남조선에서의 제국주의 식민지 략탈의 후과를 은폐하는 도구로 삼고 있다.

미제가 유엔 조사단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소위 《기본 방향》을 규정한 《한국 경제 재건 계획서》에서는 《한국 인구의 급격한 장성》과 《절대적 과잉 인구의 증가》를 요란히 떠들면서 이것이 바로 《휴전 후의 한국의 긴박한 경제 형편을 낳게 한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악명 높은 신말사스주의자인 아이린. 비. 토이바는 《조선 인구의 과거와 미래》라는 자기 저서에서 《조선 인구와 경제가… 인구학적 비극》에 처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말사스의 나라 조선을 재인식하라》고 떠들고 있다.

미제는 인구의 《절대적 과잉》론을 벌려서 남조선을 군사 기지화하고 세계 전쟁 도발의 전초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저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부과된 과중한 군사 부담, 대포 밥의 구렁텅이에로 밀어 넣는 강제 징병 등이 빚어낸 모든 후과가 미제의 침략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도 남조선에서의 《과잉 인구》가 그것을 불가피하게 초래하고 있는듯이 말하고 있다.

해방 후 남조선에서 미제 고용병들에 의하여 감행된 모든 식인종적 만행은 신말사스주의의 사상적 독소가 어떻게 그들을 인간의 탈을 쓴 야수로 전환시켰는가를 잘 보여 준다.

❊ ❊

남조선 괴뢰 도당들은 미제의 이러한 침략 사상을 그대로 받아 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저들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 박 정희 도당은 기만적인 《경제 재건》 노름이 파탄되고 경제와 민생고가 전면적으로 파탄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말사스 인구론에 매달리고 있다.

그들은 금년 초부터 피임(避姙) 타태(墮胎) 산아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 계획》을 《국민 재건 운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5년 간에 2만 여 세대의 남조선 주민들을 남미주와 동남 아세아 등지의 농장주들과 자본가들에게 종신 노예로 팔아 먹기 위하여 소위 《해외 이주 5개년 계획》이라는 흉악한 계획을 꾸며 내였고 그것을 실현할 목적으로 《해외 이주법》까지 조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과잉한 인구의 나라에서 자금 형성의 곤난》을 《원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떠벌리면서 남조선을 외국 독점가들의 완전한 시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저들의 흉악한 매국 배족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출판물들에서는 《인구 과잉》에 대한 론의가 매우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남조선의 어용 학자들이 미제와 괴뢰 도당의 반동적 정책을 합리화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그들은 《아세아라고 하는 인구 팽창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단위 면적에 인구가 집중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과장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식량이 모자라고 빈곤이 생기고 악덕이 생기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신말사스주의 선전자들은 남조선 산업의 전면적 파산과 령세화가 《과잉 인구》에 기인한다는 것을 론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례하면 《한국 경제 강좌》에서 신말사스주의의 신봉자는 오늘 남조선 인민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 그의 비참한 생활 형편 등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과잉 인구 법칙에 영향 받은 한국 경제의 숙명적인 운명》이라고 결론하고 있으며 정전 후 남조선 경제의 《전면적 붕괴, 그의 더욱더 심해 가는 령세화》의 원인이 바로 다름 아닌 《과잉 인구의 압력》, 《절대적 과잉 인구》의 존재에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모든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조선 공업의 파산의 원인이 《과잉 인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제가 17년 간에 걸치는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 남조선을 자기들의 자본 투하지로, 잉여 상품의 판매 시장으로, 군사 전략 기지로, 원료의 략탈지로 전변시킨 데 있다.

신말사스주의의 신봉자들은 이미 파산 당한 《토지 수확 체감의 법칙》을 끄집어 내면서 남조선에서의 식량난이 인구가 부단히 장성함에 반하여 경작지와 수확고는 감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과 농업 파괴 정책이 초래한 후과를 은폐하려 한다.

오늘 신말사스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론거의 기초로 되는 《경이적 인구 증식》의 허위적 사실을 력설하는 데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한편으로는

말사스 인구론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며 다른 편으로는 해방 후 자기들의 식민지적 략탈과 파쑈 테로 학살이 남조선의 수 많은 인명을 빼앗아 간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며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 돌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남조선 인구 증가률이 해방 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미제가 도발한 전쟁 피해, 강제적 군대 징모와 미증유의 생활난 등에 의한 결혼 건수의 축소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의 파탄, 둘째로 각종 질병과 사회적 재해로 인한 높은 사망률, 세째로 미제의 만행과 파쑈 정권에 의한 대량적인 구금과 학살 등에 기인한다.

이에 대하여 통계 수'자가 잘 말하여 준다.

해방 후 남조선의 혼인률은 해방 전에 비해서는 60%에 불과하며 인구의 사망률은 1956~1960년 기간에 그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공식적 통계에 의하더라도 매년 1.8~2%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률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세 미만의 사망률은 현재 무려 45%에 달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인구의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보다도 실로 17년이나 줄어 들었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33세에 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엄연한 사실은 남조선에서 인구 장성이 기하 급수적이라는 신말사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외곡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모든 주장이 무근거하다는 것은 또한 북반부의 현실이 물질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들의 리론과는 반대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인구가 부단히 증가하는 동시에 국민 소득은 이보다 더욱 급속히 장성하고 있다.

즉 우리 당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북반부에서는 해방 전에 비하여 사망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인구의 증가률은 2.7배나 높아지고 평균 수명은 20년이나 더 연장되였다. 그와 동시에 국민 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1949년에는 209%로, 1956년에는 319%로, 1959년에는 636%로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북반부의 이러한 현실은 남조선에서 경제의 전면적 파탄과 4,000년 래의 민생고는 《가족 계획》이나 《해외 이민》이나 《외자 도입》 또는 《전쟁》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원인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종식시키고 그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 조선 인민은 일치 단결하여 미제를 몰아 내며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리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한결같이 일어 나서야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여야 한다.

현대 독점 자본주의 발전의 추세

현 호 범

현 시기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제국주의는 현대의 모든 진보적 운동을 야수적으로 억압 유린하는 인류의 흉악한 원쑤이다.

국제 로동 운동,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 평화를 위한 투쟁—이 모든 것은 결국 제국주의와의 투쟁에 귀착된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추세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 그의 부패성과 기생성의 증대, 그리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부단한 강화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현대 자본주의 발전의 불가피한 추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심각한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의 산물이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는 계급적 모순을 거대한 규모로 첨예화시키며 경제적 면에 있어서도—트레스트, 물가 등귀—정치적 면에 있어서도—군국주의의 장성, 전쟁의 빈발, 반동의 강화, 민족적 압박과 식민지 략탈의 강화 및 확대—대중의 형편을 악화시킴으로써 대중을 … 투쟁에로 추동》(전집, 제 22권, 184페지)한다.

독점의 지배는 비단 로자 간의 모순 뿐만 아니라 중 소 기업들을 대량적으로 몰락시키며 또 병탐함으로써 독점과 중 소 부르죠아지들 간의 모순도 더욱 격화시킨다.

미국에서는 1961년에만 하여도 1만 7,000 여개의 기업들이 파산되였으며 금년 1월에는 다시 전년 동기에 비하여 3%나 더 많은 1,447개의 기업이 몰락되였다. 그리고 대독점체에 의하여 병탐된 중 소 기업의 수는 1960년에 1,012개였다면 1961년에는 1,234개 즉 222개나 더 많았다. 은행을 보더라도 1939년에 비하여 1957년에 상업 은행이 916개 감소되였으며 은행 총수는 1952년에 비하여 1961년에 도합 640개가 감소되였다.

형편은 기타 자본주의 나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는 1935년부터 1948년까지의 기간에만 하여도 도합 5만 2,081개의 기업이 파산 몰락되였거나 대기업에 의해 통합되였다. 그것은 대부분이 소규모의 기업들이였다. 이 기간에 종업원 수 99명 미만의 기업은 무려 5만 5,631개나 감소되였던 것이다. 영국에서는 또한 중 소 은행도 계속 파산 병탐됨으로써 1900년에 주식 은행이 98개가 있었다면 1913년에는 61개로, 1957년에는 21개로 감소되였다.

대독점에 의한 중 소 기업의 이와 같은 대량적인 파산 몰락은 불가피하게 독점에 대한 중 소 부르죠아지들의 반항을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다.

독점 부르죠아지들은 근로 대중 뿐만 아니라 중 소 부르죠아지들에게서까지도 고립되여 그의 사회적 지반이 더욱더 약화된다. 그들은 국가 기구를 리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경제적 및 정치적 지배를 유지할

수 없으며 독점적 고률 리윤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독점은 국가 기구를 종속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나라의 경제 생활 전반을 좌지우지하게 되며 사'적 독점이 국가적 소유와 밀접히 융합되게 된다. 즉 독점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로 이행하게 된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이렇듯 제국주의의 심각한 모순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모순이 첨예화됨에 따라 더욱 강화되였다.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독점 자본주의로부터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로의 이행을 비상히 촉진시켰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한 것은 제국주의 모순이 극도로 심각화된 결과에 의하여 초래된 제 1차 세계 대전과 1929~1933년 경제 공황, 제 2차 세계 대전 및 그 이후의 자본주의의 극심한 전반적 위기였다.

레닌은 제 1차 세계 대전 기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 자본주의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화하는 과정을 비상히 촉진시키고 첨예화시켰다. 만능의 힘을 가진 자본가 동맹들과 더욱 더 밀접하게 융합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근로 대중의 혹심한 억압은 더욱 더 혹심하여지고 있다》 (전집, 제 25권, 482페지).

전쟁과 경제적 붕괴를 리용하여 독점들은 국가 기구를 종속시켜 수다한 중소 기업들을 병탐하면서 자본주의적 한계 내에서의 생산의 사회화를 현저히 강화하였다.

가장 파국적이였던 1929~1933년의 공황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다. 미국에서는 파산의 위협에 봉착한 은행, 공업 콘체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대한 국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주었으며 이태리에서는 대독점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중요 공업 부문과 대은행에 국가가 참가하는 제도를 창설하였다. 독일에서는 수다한 기업들을 강제적으로 카르텔에 통합시켰다.

제 2차 세계 대전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독점 자본주의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로의 장성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전후 시기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약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였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비상히 강화되고 식민지 체계가 전면적인 붕괴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자본주의 세계 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로동 운동이 앙양되여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되였다.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국가 기구가 독점에 철저히 종속되였고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증대되였으며 국가적 소유가 강화되고 그것이 더욱 사'적 독점과 유착되였다.

무엇보다도 금융 거두들과 부르죠아 국가 지도자들의 인'적 결합이 고도로 발전되였다. 어제'날의 은행가가 오늘은 대신으로 되고 있으며 오늘의 대신이 래일에는 독점 회사의 대리인으로 된다.

현 미국 위정자의 거의 전부는 케네디 자신도 포함하여 억만 장자들과 밀접히 련결된 부호들이다. 국무 장관 러스크는 록펠러 재단의 리사장이였고 재무 장관 딜론은 록펠러와 함께 아프리카의 석유 자원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방 장관 맥나라마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였다.

오늘 독점에 종속된 제국주의 국가들은 그것이 어떠한 집정자에 의하여 관리되든지 간에 독점적 고률 리윤을 보장하며 독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파산에 직면한 독점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납세자들을 희생으로 각종 보조금들을 지불하고 있으며 독점체들에 유리하게 로임을 동결하고 파업을 금지하며, 이른바 기업 정비 등의 구실로 수다한 중소 기업들을 독점에 강제적으로 병합시킴으로써 독점 부르죠아지들을 치부케 하고 있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국가적 소유가 증대되였다. 미국에서 국민 생산물중 국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9년에 8.2%였다면 1958년에는 그것이 무려 21.4%로 제고되였으며 영국에서는 전후 시기에 심히 로후하여진 석탄 공업, 철도 및 기타 은행, 전력 공업, 자동차 및 수상 운수, 흑색 야금 공업이 국유화되였다. 서독, 불란서, 일본, 이태리 및 기타 나라들에서는 또한 국가 독점과 사'적 독점의 공동 소유, 반관 반민 (半官半民) 회사가 형성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현 시기 뒤흔들리는 자본주의를 부축하기 위하여 지배적 독점들이 더욱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강화에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 준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불가피적으로 경제 생활에 있어서의 발광적인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 및 정치에 있어서의 나라의 파쑈화와 대외 침략을 강화한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조건 하에서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은 독점적 최고 리윤 획득의 중요한 방도이며 뒤흔들리는 제국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일시적 지탱점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독점 부르죠아지들의 부를 비상히 증대시키는 반면에 근로 대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빈궁화를 가일층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 소득 중에서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리용되는 부분은 부단히 감소되고 상품의 체화는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소의 조업률은 저하되고 있다.

미국 국민 소득 중에서 개인 소비로 리용되는 부분이 1953년에 49.4%였다면 1957년에는 48.3%로, 1961년(3.4분기)에는 45.7%로 각각 저하되였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주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를 상대적으로 그만큼 축감시키고 있으며 상품의 체화를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상품의 체화량이 950억 딸라라는 방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현 미국 예산 지출 총액을 훨씬 릉가하는 것이다.

상품의 체화가 증대됨과 함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기업의 불완전 조업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강철 생산만 보더라도 사태는 명백하다. 현 시기 영국 강철 공업의 조업률은 약 76%에 불과하며 그 생산량은 1961년 상반년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약 17만 톤 감소되였다면 1962년 상반년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159만 톤이나 감소되였다. 서부 독일에서도 금년 첫 7개월 중 조강 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07만 2,000톤이 감소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 나기 위하여 금년에 무려 20%라는 방대한 량의 조강 생산을 삭감할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결국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온갖 수단을 다하여 경제를 군사화하고 군비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대시킴이 없이는 생산을 다소나마라도 안정시킬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 기구를 장악한 독점 부르죠아지들은 오늘 더욱더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에로 나아가고 있다. 폭력 기구의 유지비를 조달하는 데만 그쳤던 부르죠아 국가 예산이 현재에 와서는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자금 공급까지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됨으로써 그 규모는 비상히 확대되고 있다. 부르죠아 국가는 오늘 국민 소득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국가 예산에 포괄시키고 있다. 례컨대 미국에서는 국민 소득의 3분의 1이 국가 예산에 포괄되게 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배적 독점체들은 《공산주의 위협》의 구실 하에 전시 경제의 평화 산업에로의 전환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으며 군사비

규모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하였다.

미국 정부는 작년 1년 간에 군사비 예산을 3차에 걸쳐 증가시켰다. 미국의 직접적 군사비는 1954~55 회계 년도에 406억 딸라였다면 1960~61 회계 년도에는 475억 딸라로 증가되였다.

간접적 군사비까지 포함한다면 그것이 1962~63 회계 년도에는 실로 728억 딸라에 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의 국가 예산 지출 총액이 925억 딸라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예산 지출의 80%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단히 증가되는 군사비 지출은 군사 주문을 급격히 확장함으로써 독점체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보장하여 주고 있으며 로동자들의 로임과 농민, 수공업자들이 조성한 가치의 적지 않은 부분을 각종 조세 형태로 국가 예산에 흡수하여 그들의 빈궁화를 더욱 촉진하는 대가로 독점체들의 리윤을 비상히 증대시키고 있다.

다음 자료는 경제의 군사화가 독점체들에게 가져다 주는 막대한 리윤에 대하여 말하여 주고 있다. 미국 독점들의 리윤은 제 2차 대전 이전의 6년 간에 약 300억 딸라였다면 제 2차 대전의 6년 간(1940~1945년)에는 약 1천 200억 딸라 였으며 군비 경쟁에 의하여 전후 6년 간(1946~1951년)에는 약 2천억 딸라에 달하였다. 미국 독점들의 리윤은 1957년 한 해 동안에만도 434억 딸라에 달하였다.

오늘날 국가 기구를 완전히 장악한 독점들은 경제의 군사화와 대외 팽창,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이른바 《원조》라는 수단을 창안 리용하고 있다.

《원조》는 국내의 과잉 상품을 실현하며 후진 국가들을 침략하기 위한 수단이다.

독점들은 국가 예산 자금의 일부를 《원조》 자금으로 설정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이 자금으로 자기의 과잉 상품을 고'가로 구입케 하여 국고로부터 막대한 리윤을 짜 낸다. 《원조》는 또한 해외에서 대포'밥을 준비하며 그 나라의 민족 경제를 파괴하여 그것을 자국 군사 경제의 부속물로 전화시킴으로써 막대한 공물을 독점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이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남조선을 식민지 군사화하고 경제를 전면적으로 파괴 몰락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군비 경쟁과 대외 팽창을 위하여서 또한 불가피적으로 발광적인 전쟁 소동과 부단한 국부 전쟁을 감행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조건 하에서 전쟁 소동과 대외 침략 및 나라의 파쑈화는 어떤 개별적 인물이 집정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우연적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필연적 동반자이다.

전쟁이 일어 나거나 전쟁 상태가 부단히 유지됨으로써만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군수 물자에 대한 수요를 높이며 군비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경제를 군사화할 수 있다.

전후 시기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국부적인 침략의 계속이였다. 조선에 대한 침략을 포함하여 희랍, 월남, 인도네시아, 대만, 알제리아, 애급, 씨리아, 웽그리야, 콩고, 라오스, 큐바 등 지구의 한 쪽 구석에서 침략의 화염이 꺼져 본 적이 없다.

사실 미 제국주의 독점 계층들은 조선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도래하고 있는 파국적인 공황과 그에 의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모면할 수 있었으며 나토, 쎄아토 및 기타 침략 쁠럭들을 조작하고 전쟁 소동을 강화하며 국부 전쟁들을 빈번히 일으킴으로써 이 쁠럭의 군사비를 끊임 없이 증대시킬 수 있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부단한 국부 전쟁 속에서 군비 경쟁을 유지 강화하며 무너져 가는 제국주의 지반을 지탱하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독점 부르죠아지들은 민주주의의 가면마저 완전히 벗어 던지고 공공연히 로동운동과 일체 진보적 요소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라를 더욱더 파쑈화하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하에서의 제국주의 모순의 가일층의 심각화, 시장의 축소—이것은 대외 침략을 위한 국제 독점을 미증유로 강화하게 하였다. 최근 년간에 지배적 국제 독점은 그 규모와 역할에 있어서 종전의 그것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세계를 분할하려는 서구라파 6개국(서부 독일, 불란서, 이태리, 베르기, 화란, 룩셈부르그)에 의하여 창설된 《구라파 경제 공동체》는 개별적 생산 부문들이나 기업들을 망라하는 국제적 독점과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참가국들은 《정치적 통합》까지도 운운하고 있다.

《공동체》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의 심각화와 관련하여 그들의 정치적 지배를 유지하며 독점적 최고 리윤을 취득하기 위한 억압과 착취의 도구이며 동시에 그것은 침략의 도구인 것이다.

《공동체》 참가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자본주의 모순, 앙양되고 있는 로동 운동에 독점체들의 국제적 힘을 대치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할 것을 주요하게 목적하고 있다.

미제는 《공동체》와의 일부 모순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으로 하여 그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나토》의 경제적 지반으로 전화시키려고 《서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의 해체와 영국의 《공동체》에의 가입을 적극 조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가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견고한 것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시기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심각한 모순의 산물인 《구라파 경제 공동체》는 새로운 모순을 배태하며 발전시킨다. 《공동체》는 이여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리해를 침해하며 그들과의 모순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성원 국가들 간에 있어서도 부단히 변동되는 력량 관계에 기초한 모순의 심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의 급속한 발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독점의 전횡을 반대하는 투쟁의 강화,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앙양, 후진 국가들에서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투쟁은 《공동체》의 위기를 더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 *

현대 독점 자본주의가 림종에 가까와 오면 올수록 로동 운동 내에서 부르죠아 사상의 대변자인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더욱더 각종 《리론》을 붙여 가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미화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공공연히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로의 일보》라고 하면서 그것이 발전하면 혁명이 없이도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사회주의적인 것으로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이 경우에 부르죠아적 국유화 및 국가적 소유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은 개별적 기업소 또는 개별적 부문의 국유화를 극구 찬양하면서 국가적 소유 즉 국가 독점을 사회주의적 소유의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허황한 잠꼬대이다.

부르죠아적 국가 소유는 사'적 소유의 변종이며 부르죠아 집단의 소유에 불과하다. 그것은 로동과 자본의 대립을 변경은 고사하고 다만 약간의 완화도 시킬 수 없다.

엥겔스는 부르죠아적 국유화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현대 국가는 그 형태는 여하간에 본질상으로는 하나의 자본주의적인 기계이며,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관념적 총 자본가이다. 그것이 생산력을 자기 소유 하에 더 많이 장악하면 할수록, 그것의 총 자본가로의 전화는 더욱더 완전하게 될 것

이고 그것은 더욱 많은 국민을 착취하게 될 것이다》(반듀링론, 조선문 판, 369 폐지).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개별적 기업 또는 부문의 국유화는 결코 대중의 압력의 결과가 아닌 것이다. 한 푼의 임금 인상의 요구도 횡포하게 탄압하고 있는 독점들이 자기의 소유를 말 없이 내논는다는 것을 믿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부르죠아적 국유화는 독점의 리해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그들을 보호한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가 독점은 다만 파산에 림한 어떠한 산업 부문의 백만 장자들의 수익을 증대시키며 확고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실상 영국에서 국유화된 부문의 기업들이 대부분 결손을 보고 있었던 기업들이며 석탄, 전력 기업들은 국유화된 이후 국내 산업의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킨다는 구실 하에 가치 이하로 생산물을 독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로동 계급에게서 착취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독점의 소유로 되게 하였다.

레닌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0 여년 전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에로의 일보》라고 하는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독점 자본주의라는 말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독점 자본주의 또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벌써 〈국가 사회주의〉 등등으로 불리울 수 있다고 하는 부르죠아 개량주의자들의 주장이 가장 보편적인 오유로 되여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것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진정한 대표자들에게는 사회주의 혁명이 가깝다는 것, 용이하다는 것, 실현할 수 있다는 것, 절박하게 제기되였다는 것을 주장할 론거로 되여야 하지 결코 모든 개량주의자들이 일삼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부인과 자본주의의 분식을 용허해야 한다는 론거로 되여서는 안 된다》(전집, 제 25권, 564~565페지).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아무리 떠벌려도 사태의 본질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그 경제적 기초에 의하여 항상 침략적이며 략탈적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대한 미화는 제국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그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기 위한 악랄한 책동에 불과하다.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

박 순 재

오늘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쇠퇴 몰락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구원하며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알륵을 완화하기 위한 길을 독점체들의 국제적 《통합》에서 찾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2차 대전 후 사회주의 진영의 형성과 그 위력의 장성, 민족 해방 운동의 급격한 앙양에 의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급속한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진영은 심히 약화되였으며 세계 력량 관계는 사회주의 진영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였고 사회주의는 세계 발전의 주되는 요인으로 되였다. 제국주의 세력은 자기들의 여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과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을 반대하는 반동 세력의 국제적 련합에 매여 달리고 있다.

독점체들이 국제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정치적 동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지향은 전후 자본주의 시장이 현저히 축소됨으로써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독점체들 호상간의 알륵이 더욱 심화되고 보다 강한 제국주의 국가가 보다 약한 나라에 대한 침투와 지배가 강화된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근 년간 구라파 독점체들은 이러한 모순과 알륵을 《완화》하며 자본주의 세계를 《조화적으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서부 독일, 불란서 등 서구라파 6개국 독점체들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 하에 1958년에 《공동 시장》(서부 독일, 불란서, 이태리, 벨기, 화란, 룩셈부르그)을 조작하였다. 오늘에 와서는 영국과 기타 일부 구라파 나라들을 이 독점적 《통합》에 인입하여 그것을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가 로골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독점적 《통합》으로써도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으며 《통합》은 그들 간의 모순과 알륵을 더욱 격화시킬 뿐이다.

1

서구라파 《공동 시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장벽을 설정하고 성원국들 간에는 제한 조치를 철폐하여 지역 내 시장을 《단일화》함으로써 독점체들의 최대한의 리윤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서구라파 《공동 시장》이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와 대결》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동기에 있다.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의 지반과 《나토》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민족 해방 운동 및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을 반대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도구로서 출현하였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공동 시장》을 제국주의적 반동 세력의 군사 정치적 보루로 보고 있다.

구라파에서 군비 확장과 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독점적 《통합》을 리용하고 있다. 《공동 시장》의 참가국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대결》하기 위하여 공동의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공동의 군사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군사비는 부단히 증가하고 있으며 나토의 군사비 총액에서 이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공동 시장》 참가국들 간에 무기 생산을 조절하며 이 사업에서 군사 기술적 경험을 교환할 데 대한 협정들이 체결되였다. 6개국 원자 련합(유라톰)은 구라파에서 핵무기 생산을 준비하는 과학 연구와 조직상의 중심 기관으로 되고 있다.

《공동 시장》 지역 내에는 《나토》군의 기본 공격 력량이 배치되여 있다. 《나토》 참가국들 간에 통일 전략, 운수 체계와 군수 공급 체계의 창설이 급속한 템포로 추진되고 있으며 로케트 기지 등이 설치되고 있다.

특히 《나토》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은 《공동 시장》을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의 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공동 시장》 성원국들의 공업 총 생산의 44.7%와 수출의 39.6%를 차지하고 있는 서부 독일은 사실상 서구라파의 《맹주》로 행세하고 있으며 독점적 《통합》을 군국주의 세력의 부활의 중요한 온상으로 삼고 있다.

서구라파 《공동 시장》은 또한 후진 국가들을 집단적으로 착취하며 이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영국과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독점적 《통합》에 인입되는 경우에 강력한 구라파 독점체들 앞에서 그 나라들의 민족 경제는 완전히 파산 당할 것이며 민족 공업 발전의 길은 막히고 말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공동 시장》은 자립적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신생 국가들에 대해서도 로골적인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경제를 절식시키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구라파 《공동 시장》은 독점체들의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며 로동 계급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독점체들의 《통합》과 그와 관련된 생산의 집적 및 합리화로 인하여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리하여 《공동 시장》 참가국 독점체들의 리윤은 급격히 증대되였다. 이 나라들의 35개 최대 트레스트의 순 리윤은 1957년부터 1961년 기간에 2.7배로 늘어난 반면에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은 현저히 저하되였다. 실례로 불란서에서만 보더라도 《공동 시장》 형성 이후 년간에 대부분의 로동자, 사무원들의 구매력은 1957년에 비하여 6~8% 저하되였으며 일부 부류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15~20%나 낮아졌다.

농민들의 령락은 거대한 규모에 달하였다. 최근 년간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서는 약 800만의 농민들이 농토를 떠나 도시에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서구라파 독점적 《통합》이 추구하는 목적은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며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부합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제는 《공동 시장》 형성 시초부터 그를 극력 지지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영국과 기타 일부 나라들을 이 독점적 《통합》에 인입시킴으로써 침략적 《나토》의 정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 해방 운동,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데서는 동일한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련합 전선을 취한다. 그러나 이것은 제국주의 렬강 간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적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그들 간에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과 알륵이 있다. 그것은 최근 영국이 《공동 시장》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로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2

《공동 시장》을 둘러 싼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과 알륵은 우선 영국을 일방으로 하고 서부 독일과 불란서를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에서 극히 첨예화되고 있다.

《공동 시장》이 발족한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불균형적 발전에 의하여 구라파 렬강들 간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일정한 변동이 일어 났다. 이 기간에 《공동 시장》 참가국들인 서부 독일, 불란서, 이태리, 화란 등은 영국, 미국에 비하여 공업 생산 장성률에서 일정한 정도로 앞섰다. 《공동 시장》과의 무역 경쟁에서 영국이 령도하는 《자유 통상 지대》(영국, 서전, 노루웨이, 덴마크, 오지리, 서서, 포도아)는 막대한 결손을 초래하였으며 영국에 대한 일부 성원국들의 불만으로 하여 이 뿔럭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로 되였다. 영국은 1961년도에 《공동 시장》과의 통상전에서 무려 22억 5천 200만 딸라라는 결손을 보았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영국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자기의 경제 형편을 개선하며 무역 결손을 메꾸기 위해서는 《공동 시장》의 대외 관세 장벽을 뚫고 서구라파에 침투하는 길밖에 없다고 타산하였다. 영국 독점체들의 이러한 야망을 배경으로 하여 영국 정부는 작년 9월 《공동 시장》에 가입할 것을 정식으로 신청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영국의 위정자들은 《시간은 영국의 편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일은 영국이 즉시로 공동 시장에 들어 가기 위한 협동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공동 시장》에 가입할 것을 지원해 나서면서도 그의 가입 조건으로서 일련의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즉 그가 《공동 시장》에 가입한 후에도 영 련방(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가나 및 나이제리아 등)과의 리해 관계에서 손실을 방지하

며 나아가서는 《공동 시장》에 대한 령도권을 장악해 보려 하고 있다.

한편 서부 독일 및 불란서가 령도하는 《공동 시장》측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신청을 구라파에서 그의 령도적 지위를 약화시키며 영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절호의 기회로 리용하고 있다.

영국과 서부독일 및 불란서 간에는 상반되는 타산과 리해 관계로부터 허다한 착잡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 련방 국가들로부터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장 문제와 가격 정책 문제를 둘러 싸고 의견 차이는 절정에 달하고 있다.

영국은 한편으로는 《공동 시장》에 침투하며 다른 편으로는 영 련방과의 《특혜 관세제》를 계속 유지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 시장》 참가국들은 영 련방의 농산물 수출에 담보를 줌으로써 그것이 관세 장벽을 뚫고 《공동 시장》에 마음 대로 침투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따라서 영국의 그러한 요구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불란서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만일 영 련방의 저렴한 농산물이 《공동 시장》에 침투하게 되면 《공동 시장》 권내의 농산물 수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란서가 불리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또한 그들은 영국에 그 어떤 담보를 줌으로써 영국이 구라파에서 경제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치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배'심 좋은 가입 조건은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둘러 싸고 9개월 여에 걸쳐 로의를 거듭해 온 《공동 시장》 6개국과 영국 간의 《브류쎌 회담》이 무성과로 끝난 것은 바로 이러한 리해 관계의 충돌에 기인한 것이였다.

다른 한편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에 대하여 영 련방 국가들은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영 련방 수뇌자 회의에서는 모든 대표들이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맹렬히 비난해 나섰다. 그것은 영 련방 내에 설정된 《특혜 관세제》가 페지되면 이 나라들의 수출품은 《공동 시장》의 높은 관세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기술적으로 우세한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견디여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되자 맥밀란은 영 련방 국가 대표들의 반대를 무마하며 그들에게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납득시키려고 서두르면서 그것은 국제 정세의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설유하였다.

그러면 영국이 전통적인 영 련방의 리해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 시장》에 가입하려고 애쓰는 리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동 시장》과의 무역 경쟁에서 패배를 당한 영국이 서구라파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장악한 서부 독일을 우두머리로 하는 본-파리 축을 등지고서는 더는 계속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난하게 된 사정과 관련된다.

다음으로 그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 세계》의 《통합》 정책에 있다. 미제는 서구라파에서 날로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본-파리 축이 미국의

통제와 지배를 벗어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작년 12월 6일 케네디는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관련한 미제의 팽창적 야욕을 드러내 놓으면서 미국과 서구라파의 힘이 《우리들의 공통적인 군사, 경제 및 정치적 념원에 충분히 상응할 능력을 발양하는 하나의 힘》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벌린 바 있다. 이것은 바로 《공동 시장》과 미국의 경제를 《일원화》함으로써 《자유 세계》의 경제를 미국 독점체들에 복종시켜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도구로 만들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미국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자기의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 리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으로서는 미국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타산하면서 《공동 시장》 내부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한편 미국과 정책상 협조를 강화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시장과 세력권을 쟁탈하기 위한 모순은 《공동 시장》 성원국 사이에서도 더욱 첨예하게 표현되고 있다.

《공동 시장》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는 서부 독일은 공업력을 리용하여 구라파에서 패권을 장악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현재 서부 독일은 《공동 시장》 전체 참가국 공업 총 생산량의 44.7%를 생산하고 있으며 《공동 시장》 내에서 통합된 최대의 트레스트 43개 중 22개가 서부 독일에 있다. 《공동 시장》에 대한 절대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서부 독일의 시도는 불란서와 기타 나라들 측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불란서는 구라파에서 영, 미를 배제하고 패권을 장악할 데 대한 참망을 실현하는 데 서부 독일을 리용하는 한편 특히 농산물 수출을 증가시켜 《공동 시장》 내에서 경제적 지반을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공동 시장》 내부에서의 모순은 최근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정치 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화되고 있다.

특히 《정치 통합》 형태에 관한 문제를 둘러싸고 서부 독일과 불란서 간에 의견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다.

《정치 통합》 형식에 대하여 서부 독일은 《공동 시장》 참가국들이 각국의 주권을 포기하고 《초국가적》인 그 어떤 《정치 공동체》 창설안을 제기하고 있으며 불란서는 이와는 반대로 민족 국가 형식을 유지하면서 《주권 국가들에 의한 구라파 련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이한 요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부 독일,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이 제각기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정치 통합》을 위한 책동은 물론 미제의 지지를 받고 있다. 미제는 《정치 통합》을 추진시킴으로써 《나토》의 정치 경제, 군사적 잠재력을 강화하며 《나토》에서의 자기의 패권을 리용하여 《공동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공동 시장》 가맹국들의 《정치 통합》 —이것은 바로 《나토》의 방침에 따라 교묘하게 위장된 침략 책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결국 《정치 통합》의 배경과 리념은 구라파에서 서로 패권을 참망하며 쇠퇴 몰락하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지반을 수습하며 세계 사회주의 체제와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힘을 규합하려는 제국주의자

들의 지향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치 통합》은 압도적 다수 인민들의 사활적 리익을 반대하는 한 줌도 못 되는 국가 독점 트레스트들의 간악한 음모이다.

국가 독점 자본의 《통합》이 결국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식민지 인민들을 억압하기 위한 침략 쁠럭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일찌기 레닌은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다.

《구라파 자본가들의 협정으로서의 구라파 합중국도 또한 있을 수 있다.… 무엇에 관한 협정인가? 어떻게 공동으로 구라파에서 사회주의를 탄압하며, 어떻게 긁어 모은 식민지를…공동으로 수호할 것인가에 대한 협정에 지나지 않는다》(전집, 제 21권, 408페지).

⁕ ⁕

파산과 몰락의 운명을 지닌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구라파 통합》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으나 그것은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 제국주의 국가들과 후진 국가들 간의 모순, 로자 간의 모순을 완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모순과 알륵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그 어떠한 《땜질》로써도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위기를 벗어 날 수 없다.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나라들 호상 간의 경제에서 낡은 모순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미 《공동 시장》 발전의 제 1 단계에서 명백히 실증된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 《통합》은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과 수정주의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것처럼 결코 경제를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고유한 적대적 모순을 완화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 진영과 민족 해방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적 련합을 실현함으로써 력량 관계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변시키며 력사의 발전 방향을 변경시키려는 독점체들의 시도는 헛된 것이며 그것은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다.

1960년의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성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 시대에 있어서 인류 사회의 력사적 발전의 주되는 내용, 주되는 방향 및 주되는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세계 사회주의 체계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력량이다. 제국주의의 그 어떤 발악도 력사의 전진적인 발전을 정지시킬 수 없다. 사회주의의 가일층의 결정적인 승리를 위한 공고한 전제가 이루어졌다. 세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는 불가피하다》.

제국주의 진영 내부에서 날로 격화되고 있는 모순과 알륵은 자본주의 제도를 분렬 와해시키고 그의 종국적인 멸망을 촉진할 뿐이다.

근로자 제 16호 (루계 209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2년 10월 5일 인 쇄 • 1962년 10월 13일

ㄱ—230620 값 40전

서적 안내

보천보 전투

4×6판 예정 페지 80페지
발행 부수 20.000 부

이 책은 김 일성 동지의 친솔 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이 국내에서 일제 놈들에게 큰 패배를 주고 조선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준 보천보 전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여 있다. 첫 부분에서는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인 1930년대 중엽의 조선 사회 경제 형편과 인민들의 처지를 밝히고 그에 따라 혁명 정세가 성숙되는 과정들을 분석적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부분에서는 보천보 전투 과정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여기서는 김 일성 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에 대하여 여러 측면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직접 조직 전개된 보천보 전투 승리의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밝히였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학습하는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